Weekly 공감

2011.02.23 NO.98
gonggam.korea.kr

세계최대 경제영토 가진 글로벌 코리아로 약진

P25~47

"동계올림픽 이번엔 꼭 유치"… 평창은 뜨거웠다 P8~15

G20세대 팝페라 테너 임형주의 거침없는 전진 P48~49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아이는 벌써 몇 시간째
뙤약 볕 거친 길을 맨발로 걸어왔지만
좀 쉬었다 갈수도,
걸음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영양부족으로
점점 숨이 옅어지는 동생에게
이 물이라도 먹이고 싶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막내 동생마저 잃을 순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아프리카의 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으로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사진. 박찬학

월 3만원의 해외아동 1 : 1 결연후원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약속이며 기적입니다.

해외아동 결연후원 신청 (매월 3만원)

1599-0300 www.gni.kr

해외아동과 결연을 맺으시면 아동사진과 소개카드, 결연후원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굿네이버스는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부여한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를 획득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리셋'의 시기가 오고 있다

〈reset〉

홍승기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름 잘 헤쳐나왔다. 2008년 2.3퍼센트, 2009년에 0.2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6.1퍼센트의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재협상을 포함해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우리의 시장을 확대하였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EU와 모두 FTA 체결에 성공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물론 산업부문에 따라서는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20여 개가 넘는 나라들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도 이에 포함된다.

해외자원 개발과 원전수출 등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린 데 이어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우리가 세계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선진국·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 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 더 지속가능한 성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성과가 대다수 국민이 모두 체감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고 청년실업률은 8퍼센트를 웃돌면서 수명은 늘어나는데 일찍 직장을 떠나야 하는 베이비 부머세대(1955~63년생)가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실업으로 인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물가상승, 전세난 등에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와 기회를 살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셋, 즉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1870년대 경제위기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두 번의 그레이트 리셋을 경험했다. 경제위기 때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우리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의 인구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불과 몇 년 후면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마치 요즘의 일본처럼 경제가 활력을 잃고 늙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이든 고용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지금의 이 위기와 기회는 리셋(reset)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리셋은 새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미국·1870년대의 경제위기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두 번의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다. 대규모 경제위기 때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는 발명을 가속화하고 그 발명품들이 새로운 산업들을 양산하면서 지식과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G

Contents

2011.02.23 NO.98 통권 199호
http://gongga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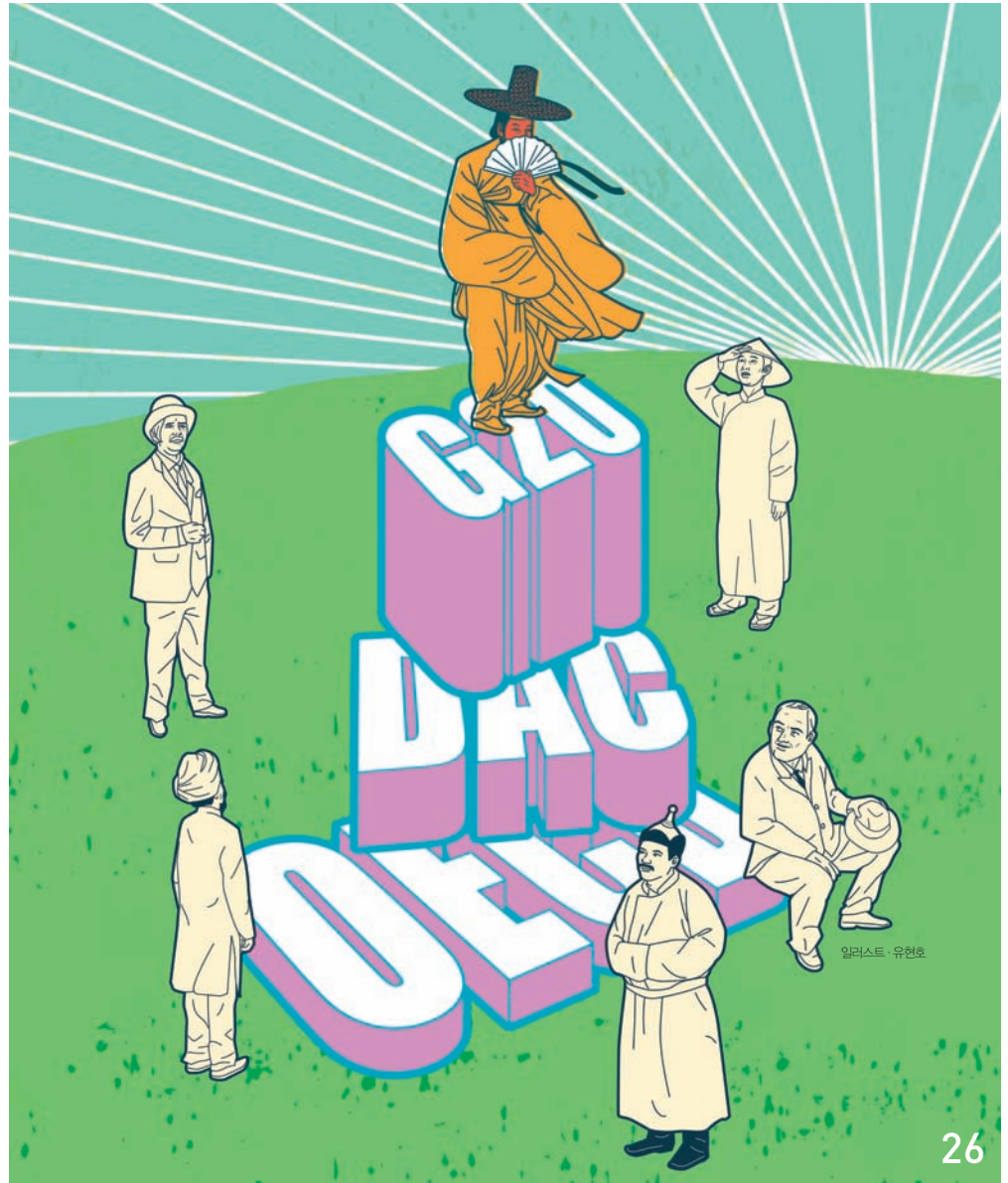
표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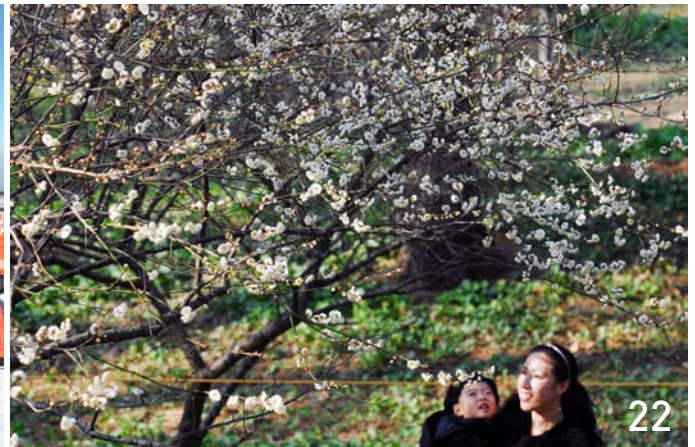
주사위는 던져졌다. '평창의 꿈'은 이루어진다. 지난 1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스키점프 대륙컵대회'에서 한 선수가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사진 · 강원도청

발행일 2011.02.2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일러스트 · 유현호

26

12

22

기획특집

세계를 품은 코리아 존경받는 코리아로

지난 3년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행보를 해 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세계 첫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신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되살아난 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일류국가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01 Reader & Leader 홍승기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26 **총론** 글로벌 세상에 우뚝 선 코리아

28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국민과 함께 과시한 '국운 융성 이벤트'

30 **FTA 네트워크 구축** 대한민국 경제영토 전세계 60퍼센트!

32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원조 받다가 원조하는 최초 국가로

34 **한미동맹 및 실용외교** 실용외교 바탕 한미동맹 복원 · 강화

36 **코리아 브랜드 가치 상승** '코리아' 인지도 · 호감도 업&업!

38 **한류문화의 범세계적 확장** 드라마서 가요로… '동방의 할리우드' 찬사

40 **재외 주재관들이 보는 한류** 중남미 · 아프리카에도 한류는 흐른다

41 **기록으로 본 청와대 3년** 해외 방문 31회… 비행거리 '지구 11바퀴'

42 **국제평화유지 역할 확대** 세계 평화 수호자로 국제사회에 기여

44 **한승수 전 총리가 말하는 미래 비전** "녹색성장 · 에너지수출이 향후 발전 토대"

46 **외신기자가 본 대한민국** "한국의 성공 뒤에는 더 많은 도전 있다"

중점기획 **평창의 꿈**

08 **화보로 보는 평창** 평창이 웃게 되리라

10 **IOC 평창 실사** 평가 큰 호응… 동계올림픽 유치 꿈 '성큼'

12 **2011 드림프로그램** "올림픽 정신 구현… 평창의 진정성 알려"

14 **평창 Q&A** 7월 6일은 운명의 날

48

04 **공감 라운지** FTA 박람회에 국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16 **핫이슈** 모든 매몰지 민관합동 '침출수' 전수조사

18 **포커스** "낙단보 마애불 은폐 · 고의 훼손 없었다"

20 **이슈&팩트** 수출금융은 원전 수주의 필수조건

22 **포토 뉴스** 들리시나요! 봄이 오는 소리

48 **G20세대의 외침** 임형주 "돈이 아닌 재능 기부하며 살고 싶어요"

50 **모두 '다 문화'입니다** "다문화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거죠"

52 **저자와의 대화** 오윤희 전 고려대장경연구소장

54 **화제의 공무원** 〈항공정책론〉 공동집필한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직원들

56 **공감 포커스** 쉿! 공연계가 수군댄다 "철밥통이 변했다"고

58 **문화 현장** 한국판 빌보드 '가온차트' 알고 계시죠?

60 **역사탐험** 수없이 고민한 者, 그는 승리한다

62 **사서가 추천하는 책** 〈구글 웨이〉

63 **공감 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64 **소통의 대화법** 칭찬은 '남친'도 춤추게 한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97호(2월 16일자) 기획특집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와 관련해 많은 독자가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가체질 개선돼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뿐만 아니라 시행정책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법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 뿌듯합니다. 말로만 듣던 저탄소 녹색성장이 고용창출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시행되어서, 진정한 녹색성장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권주영**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환영

"기획특집을 전반적으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평소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 문화생활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미술관 등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늘어서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연**

'문화포커스-시나리오 작가가 그리 힘들게 살다니'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지난 한 주 요절한 최고은씨 얘기로 인터넷 등 각종 매체가 들썩거렸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문화부의 계획이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현주**

'포토뉴스-졸업'을 보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전국 각 학교의 졸업식 사진이 정겹고 흥미로웠습니다. 작년엔 우리 집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올해는 사촌들이 대학 문을 나섭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 모두 미래의 간성과 동량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황복희**

'여주 간매천에는 세금 블랙홀이 없었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집 앞으로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 그동안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이 되곤 했는데 제방둑을 쌓고 정비가 되어서 아이들이랑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기대합니다." **홍석현**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가체질 개선

알립니다

'2011 FTA박람회'에 국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2011 FTA 박람회'가 개최된다. FTA 박람회는 3월 2~4일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미국, EU 등 주요 FTA의 국회 비준 추진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업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박람회는 개막식과 전시회, 콘퍼런스, 기업인 대상 설명회,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은 FTA 정보마당, FTA 활용마당, FTA 참여마당 등으로 꾸며져 관련 기업들과 기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기간 | 3월 2일(수)~4일(금)
관람 시간 | 10:00~17:00
관람 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전시장 1층 B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FTA 박람회 사무국 02-6000-8434

FTA 박람회 홈페이지(www.ftaexpo.org)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이해증진을 위해 아이템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 일자리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정신적(정신 · 지적 · 자폐성) 장애유형에 적합한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아이템을 응모하면 된다.

접수 기간 | 3월 4일까지
접수 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일자리 아이템응모서 및 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able2010@hanmail.net)
결과 발표 | 3월 14일 예정,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지원 혜택 | 우수제안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부상금 지급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지원팀 ☎02-3433-0712 www.koddi.or.kr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3월 1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나 기풍. "우리의 OOOO을 간직하다."
2. 탄소를 줄인, 탄소가 적은. "한국은 OOO 녹색성장의 선도국가이다."
4. 피라미드, 무바라크, 민주화….
6. 지구적, 세계적, 전반적의 뜻. "대한민국은 OOO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8.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으로 삼음. 또는 도달해야 할 곳을 목적으로 삼음.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OO로 하다."

세 로

1. 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
3. 험하거나 가파른 곳이 없이 평평하고 넓은 큰길.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한 장래. "사업이 OOOO를 걷다."
5.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6.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OO, 잘 모르겠네요."
7. 숲의 나무를 벰. 나무 베기.

〈Weekly 공감〉 96호(2월 2/9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휴게소 **4** 말꼬리 **5** 까나리 **6** 고치 **7** 아버지
세로 **2** 소말리아 **3** 우리 **5** 까치 **6** 고궁 **8** 버선발

〈Weekly 공감〉 96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동기 · 서울시 송파구 잠실5단지
엄유지 · 전북 순창군 인계면
오미선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차종안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한의지 · 경북 안동시 용상동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⑭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한비야 국제구호 활동가

조선DB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세계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세계무대에 서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죠. 늘 세계지도와 함께 자랐기에 걸어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그리 꿈같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42세 때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은 '정글의 법칙(승자독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랑과 은혜의 법칙'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그 약자가 다시 강자가 되었을 때 다시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국제구호기구의 도움을 받던 한국은 현재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자였을 때 도움을 받고, 강자가 됐을 때 잊지 않고 약자를 돌본 멋진 나라입니다.

국제구호에서 저는 식량담당이었습니다. 처음 굶어 죽는 아이를 봤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을에서 45분을 달려 시장에 갔는데, 창고에 밀가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아저씨는 한심하다는 눈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I'm a business man."
저는 '이 아저씨가 사랑과 은혜의 법칙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정글의 법칙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함께 돌아가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뛰었습니까? 제가 월드비전(World Vision)의 긴급구호 팀장 제의를 받고 처음으로 소말리아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풍토병으로 인해 손가락, 귀, 코가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케냐 의사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왜 여기에서 험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죠. 그는 저를 쳐다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없이 훨훨 타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세상의 위협에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리 · 이미령 인턴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0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마리북스 간)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이상협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 기획특집 '청와대 문턱 낮추고 서민 곁으로'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목도리 할머니' 기사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2. '국방 선진화'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적 개념 미비 등과 관련해 우리 군이 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확실하게, 최선을'이라는 구호대로 강한 군대로 거듭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3. 대통령께서 감명 깊게 본 영화를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강재옥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1. '영화 속 영웅이야기'의 웃고 있는 이태석 신부가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사람이 촛불 같은 그의 삶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보다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흘리는 눈물이 더하지 않나 싶습니다.

2. 기획기사를 읽고 저부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거침없이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3. 자신의 재능을 발굴해 소신 있게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과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제2의 꿈을 계발하고 있는 사회인들을 소개해 줬으면 합니다.

독자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24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www.naenara.or.kr
Korea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VISIT DAEGU 2011 대구방문의 해
2011 내나라 여행박람회
2011. 2. 24 목 ~ 27 일
Coex 3F C, D1 Hall
TRAVEL DIARY
나의 여행다이어리
KEEP TRAVELING TO KOREA!
별아와 함께하는 달콤한 내 나라 여행!!!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겨진 여행명소를 2011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주맛기행!
안동하회마을~
Keep Traveling to Korea!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내나라 여행박람회' 무료입장권이 보여요!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Korea Tourism Association
협력주관 KP communication KBS플러스 coex
후원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뉴시스

2월 17일 오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IOC실사단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으로 들어서자 한 어린이가 깃발을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평창이 웃게 되리라

과연 평창의 동계올림픽 3수는 성공할 것인가? 2018년 동계올림픽 후보지인 강원도 평창이 IOC 현지 실사단을 맞아 그동안 준비해 온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평창은 지난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전 때만 해도 아무 시설도 없던 허허벌판이었으나, 세 차례 동계올림픽 도전을 거치는 동안 초현대식 경기장을 갖춘 동계올림픽 후보 도시로 거듭났다.

평창은 IOC 실사기간 동안 준비된 평창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실사가 이루어진 평창의 알펜시아리조트를 이명박 대통령이 깜짝 방문한 것도 평창에는 더 없는 힘이 되었다. IOC 실사가 이루어진 일주일 동안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염원하는 강원도민과 평창군민이 내뿜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제123차 IOC 총회 투표에서 최종 결정된다.

연합

연합

뉴시스

1 2월 14일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강원도 평창군 주민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IOC 현지실사단을 태운 버스를 향해 깃발을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2 2월 17일 IOC 실사단이 강원도 정선군 중봉 알파인경기장 시설을 찾아 현지실사를 벌이는 도중 한 IOC위원이 환영나온 어린이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3 2월 17일 IOC실사단이 강원도 정선군 중봉 알파인경기장 실사를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IOC 조사평가단의 평창 현지실사

평가 큰 호응… 동계올림픽 유치 꿈 ‘성큼’

올해까지 세 차례 동계올림픽에 도전하면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평창은 IOC 조사평가단의 실사 기간 동안 ‘달라진 평창’, ‘준비된 평창’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경기장 배치는 평창이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부분이다. 본부 호텔과 각 경기장이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것은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연합

지난 2월 17일 오전 IOC 조사평가위원들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점프대를 찾아 현지실사를 벌이고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 개최능력 여부를 판단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현지실사가 열렸다. IOC 조사평가단은 지난 2월 14일 평창에 도착해 16일 8개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IOC의 유치 후보도시 현지실사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 전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다. 현지실사의 평가내용은 IOC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IOC 위원들에게 배포된다. 따라서 현지실사는 IOC 총회에서의 투표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닐라 린드버그 IOC 위원(스웨덴)이 이끄는 실사단은 위원장을 포함해 평가위원 11명과 IOC 유치관계 부서 직원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현지실사 평가 내용 IOC 총회 직접적 영향

실사에 나선 14명 가운데 8명이 지난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유치 경쟁 때 이미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들의 평창 재방문은 평창올림픽 유치에 상당한 플러스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황량한 허허벌판의 평창을 보고 갔던 이들은 이번에는 초현대식으로 완성된 알펜시아리조트는 물론, 스키점프대와 IOC 본부 호텔, 미디어 빌리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지실사단은 지난 1월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의 17개 주제별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경기장 선수촌 등 올림픽시설과 교통망 등 주요 인프라 점검, 대회 개최의지 등을 확인했다.

주제별 프레젠테이션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경기장 시설과 교통 부문의 경쟁력을 집중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올해까지 세 차례 동계올림픽에 도전하면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평창은 실사 기간 동안 ‘달라진 평창’, ‘준비된 평창’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평창은 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13개의 경기장 가운데 7개를 이미 완공했다. 나머지 6개는 기본설계 등을 마친 상태로 유치가 확정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경기장 배치는 평창이 가장 자

신 있게 내세우는 부분이다. 특히 본부 호텔과 각 경기장이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것은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 스포츠계는 물론 IOC도 이를 이미 인정한 상태다. 16일 '경기 및 경기장'에 대한 발표자로 나선 강광배 국제봅슬레이연맹 부회장은 이날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실사단에게 선수를 위한 콤팩트한 경기장을 중점적으로 강조했고, 실사단도 공감하는 눈치였다"고 했다.

평창은 실사단 방문 기간에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북미와 유럽을 오갔고, 1998년 일본 나가노대회 이후 정확하게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점을 강조해 아시아 동계스포츠 확산이란 유치 명분도 내세웠다.

지난 2월 15일 2018 동계올림픽 IOC 실사단 환영접견 및 유치위원회 격려만찬을 위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드림프로그램 참가자 선수들의 봅슬레이 스타트 훈련을 도와주고 있다.

이와 함께 평창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드림프로그램, 대관령눈꽃축제, 화이트페스티벌, 참소리박물관 소장품 전시, 전국동계체육대회, 외국인대학생 스키체험 등이 실사 기간에 열렸다.

공식 실사 첫날 8개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 평창유치위원회 조양호 위원장은 공식 브리핑에 참석해 "지난 3개월 동안 충분히 준비했고,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조사평가단이 많은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남은 기간 동안 준비된 평창의 모습과 다양한 매력 등 평창만의 장점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사평가단에 강력한 유치 의지 전달

IOC 조사평가단은 실사 둘째 날인 17일 보광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등 경기장 시설을 방문해 각종 시설과 기반시설을 둘러봤다. 현장실사에서도 유치위원회는 조사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유치위원회는 기세를 몰아 18일 프레젠테이션과 강릉 현지실사, 19일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열기를 이어 갔다. 실사 기간 평창은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의 실세들이 집결해 하루 종일 들뜬 분위기였다. IOC 위원이기도 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5일 평창으로 내려와 실사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머무르며 힘을 보탰다.

정부는 이번 실사 기간 동안 강력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향한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깜짝 평창 방문은 실사에 나선 평창에 더없는 힘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눈과 얼음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에게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는 기회를 주는 '드림 프로그램' 현장에 참가해 봅슬레이를 직접 밀어 주며 훈련을 도왔다. 15일 저녁 IOC 실사단 환영 리셉션에서는 직접 실사단을 맞이해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국민의 열정을 소개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이 평창의 세번째 실사인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과 정부가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정 장관은 "오늘 진행된 수송 관련 프레젠테이션에는 국토해양부의 차관이 참석해 직접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며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은 이미 설계까지 마쳤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오는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제123차 IOC 총회 투표에서 최종 결정된다. 1백12명의 IOC 위원 가운데 자크 로게 위원장과 유치 후보도시 소속 6명 IOC 위원을 제외한 1백5명이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해 최후의 승자를 가린다." G

글·정세영 (뉴시스 스포츠레저부 기자)

동계스포츠 불모지 청소년 초청 '2011 드림프로그램'

"올림픽 정신 구현… 평창의 진정성 알려"

'드림프로그램'은 겨울이 없어 동계스포츠가 발전하지 못한 저개발 국가 청소년들에게 강원도가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훈련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세계 동계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이다. 화합과 평화라는 IOC의 올림픽 정신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 유일의 동계스포츠 체험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도청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1 드림프로그램'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스키장 슬로프 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장이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렸다. 피부색과 말이 다른 청소년 1백40여 명이 조를 이뤄 전문 스키강사로부터 스키의 초보 단계인 자세와 걷기 기술을 배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엎어지고, 넘어지면서도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이들의 머리 위로는 함박눈이 퍼붓고 있었다.

이들은 강원도가 해마다 개최하는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이다.

드림프로그램은 강원도가 2004년부터 매년 중동,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기후 여건으로 동계스포츠 불모지나 다름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10여 일간 각종 동계스포츠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는 강원도와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올해 드림프로그램은 33개 나라에서 1백43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 가운데는 6개국 24명의 장애인도 포함됐다.

중동·아프리카서 온 140여 명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스키(알파인, 스노보드)와 빙상(피겨, 쇼트트랙, 스피드, 컬링, 아이스하키)은 물론 봅슬레이, 스켈레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등의 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종목별로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시범과 강습 기회도 가졌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행사 참가자끼리 종목별로 경기를 펼치는 '드림 챌린저대회'를 열어 그동안 배운 솜씨를 맘껏 뽐냈다. 드림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은 행사 기간 동안 동계스포츠 종목 체험뿐 아니라, 참소리박물관, DMZ박물관, 통일전망대 견학과 한국문화체험, 태권도 배우기, 워터파크 체험 등을 통해 한국을 배우고 서로 우의

2011 드림프로그램 참가국과 인원		
구분	일반인 참가국가	장애인 참가국가
아시아 (15개국 74명)	대만(4), 필리핀(4), 말레이시아(4), 싱가포르(4), 인도네시아(4), 인도(4), 시리아(4), 레바논(4), UAE(3), 오만(3), 태국(4), 파키스탄(4), 몽골(4), 한국(4)	필리핀(4), 말레이시아(4), 사우디아라비아(4), 태국(4), 한국(4)
유럽 (3개국 11명)	그리스(3), 체코(4), 우크라이나(4)	
중남미 (8개국 31명)	멕시코(4), 과테말라(4), 페루(4), 세인트루시아(4), 콜롬비아(3), 바베이도스(4), 파나마(4), 아르헨티나(4)	
아프리카 (7개국 27명)	모로코(3), 세네갈(3), 카메룬(4), 케냐(4), 에티오피아(2), 토고(4), 남아공(3)	케냐(4)

· **주최/주관** 강원도,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재)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참가규모** 33개국 143명(2010년 29개국 114명)

강원도청

전문 강사로부터 스키 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드림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

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오전에 스키 기초를 배운 드림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은 오후에는 실제로 스키 슬로프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처음인데도 모두 제법이었다. 스키강사 황상수씨는 “청소년들이라 운동감각이 좋아서 그런지 스키를 금방 배운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13세의 샤론 양은 “눈도 스키도 모두 처음이다. 슬로프를 내려올 때 조금 무서웠지만 정말 재미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에서 스키 배워서 국가대표 될래요”

시리아에서 온 후다 하모드(여) 씨는 스키 대신 스노보드를 배우고 있었다. 4명의 자국 청소년을 이끌고 코치 자격으로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했다는 그는 “시리아는 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다”며 “한국에 와서 진짜 눈 위에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탈 수 있게 된 것은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케냐 장애인팀의 통역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박솔희(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3년)씨는 3년째 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박씨는 “태어나 눈을 처음 밟아 본 아이들은 추운 줄도 모르고 신기해하고, 즐거워한다”며 “나의 작은 봉사 활동이 한국을 알리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드림프로그램은 2018 동계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평가단의 평창 현지 실사(2월 14~20일) 기간에 맞춰서 진행되었다.

IOC 실사단의 현지 실사가 시작된 2월 1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알펜시아를 방문해 동계올림픽 유치운동에 힘을 보탰다.

허남석 강원도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국제행사과장은 “강원도의 드림프로그램은 세계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세계 유일의 동계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이라며 “IOC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은 겨울 스포츠 강국인 유럽 각국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는 동계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한 체험이나 선수들이 훈련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계스포츠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겨울이 없는 저개발국가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경기종목의 체험과 훈련을 할 기회를 줌으로써 세계 동계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프로그램은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IOC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됐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두번(2010, 2014년)이나 실패했지만, 강원도는 IOC와 약속한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까지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부터 작년까지 42개국 8백6명의 청소년이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가운데 8개국 12명이 자국의 국가대표가 되어 동계올림픽이나 세계대회 등에 참가했다.

한만수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단장은 “국제 스포츠계는 강원도의 드림프로그램에 대해 ‘동계올림픽 불모지에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세계 유일 동계스포츠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 행사를 시작하면서 평창이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한 단장의 설명이다.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동계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평창의 진정성과 참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창이 인류 화합과 평화 조성이라는 올림픽 이념 확산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국제 스포츠계로부터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

글 · 이상흔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이것이 궁금하다

7월 6일은 '2顚(전)3起(기)' 운명의 날

오는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IOC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평창,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14일에는 IOC 동계올림픽 현지 실사단이 평창 현지를 방문하면서 유치 경쟁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유치 활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IOC 조사평가단의 실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

A IOC 실사단은 평창이 지난 1월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을 토대로 평창의 올림픽 개최 능력을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했다.

17개 주제별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해 경기장, 선수촌 등 올림픽시설과 교통망 등 주요 인프라를 점검했다.

또한 대회 개최 여건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 대회 리스크, 대회 개최 의지 등을 평가했다. 평가한 결과는 5월 18~19일 개최되는 스위스 로잔 보고회에서 발표하게 된다.

Q 한국을 방문한 IOC 위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A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IOC 실사단은 총 14명으로 평가위원 11명 및 IOC 사무국 직원 3명으로 구성됐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투표권을 지닌 IOC 위원의 표심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올림픽 개최지는 IOC 위원 개개인의 성향이나 소속 국가의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IOC 위원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유치전략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Q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정부 보증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A 중앙정부, 지자체, 국제 경기연맹, 국내 경기연맹 등 총 1백20개 기관과 단체에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총 2백36건의 보증서를 제출한다.

중앙정부는 총리실을 포함하여 총 9개 부처에서 28건의 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5건의 보증서(①올림픽마크 보호 ②무상서비스 및 인력파견 ③매복마케팅차단 보증 ④복권발행 ⑤경기시설공사에 따른 재원조달)를 제출했다.

IOC 실사단은 정부와 자치단체 등 보증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보증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2월 17일 오전 IOC 조사평가위원들이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을 살펴보며 현지실사를 벌이고 있다.

Q 실사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A 오는 3월 말 국제체육기자연맹(AIPS) 총회(3월 22~27일, 서울), 4월 스포츠어코드(4월 3~8일, 영국 런던) 등 국제 행사에서 후보도시별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5월 IOC 후보도시 브리핑(5월 8~9일, 스위스 로잔)을 거쳐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지 선정 총회가 열린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제123차 IOC 총회에서 결정된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총 1백 11명의 IOC 위원 중 위원장 및 2018 동계올림픽 후보도시인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의 IOC 위원(6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며, 과반수를 획득한 도시가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다.

Q 평창이 세번째 동계올림픽 도전에 나섰다. 세 번이나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A 대한민국은 올림픽 덕을 가장 많이 본 나라 중의 하나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란 존재를 세계에 드러냈다.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졌고,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하면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국민에게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고, 올림픽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Q 평창이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에 비해 더 높은 쟁쟁력이 있다면.

A 현재 우리 국민의 약 92퍼센트, 강원도민의 94퍼센트가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 이 같은 높은 올림픽 유치 열망이 세번째 유치 도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평창은 지난 두 번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IOC와 국제스포츠계에 약속해 왔던 사항을 성실히 지켜 왔다.

겨울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기회를 주는 드림프로그램을 매년 개최하고 있고,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최첨단 경기장 13개 중에 7개를 완성했다. 모든 경기장은 알펜시아리조트를 중심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배치했으며,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선수중심·경기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 외에도 강원도는 올해 국제스키연맹(FIS) 스키점프 대륙컵과 스노보드 월드컵 등 세계 규모의 동계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 '준비된 평창'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Q 평창이 동계올림픽 슬로건으로 내세운 '뉴 호라이즌스(New Horizons)'는 무슨 의미인가.

A 'New Horizons(새로운 지평)'는 동계스포츠 발전을 이끌 '신세계(New World)', '신세대(New Generation)', '새로운 가능성(New Possibilities)'을 의미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아시아 지역에서 동계스포츠 확산에 기여하고, 기존 동계올림픽과는 다른 새로운 팬·참가자·소비자를 창출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평창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에 10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에 성공하면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확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New Horizons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국제 스포츠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다.

Q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은.

A 지난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은 강원도가 중심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IOC 실사단에게 공항 환영에서부터 프레젠테이션, 공식 행사 등에서 정부의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의지가 전달되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강원도, 대한체육회(KOC) 등과 협력하여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 궐석에 따른 유치 활동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Q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A 경쟁 도시인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는 전통적인 동계스포츠 도시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평창은 지난 두 번의 유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의 동계스포츠 확산'이라는 훌륭한 명분을 강조하면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종 개최지 선정까지 많은 변수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어느 도시가 앞선다고 예측을 할 수 없지만,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면 아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도 올림픽 정신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기대효과는.

A 경제적인 효과도 크겠지만, 우리의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의 가치를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아시아 여러 나라는 '아시아도 동계스포츠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G

정리·이상흔 기자

모든 매몰지 민관합동 ‘침출수’ 전수조사

관리실명제로 상시 관리체계 강화… 매몰지 주변 3백미터 수질조사

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위험은 산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매몰지 관리실명제’ 등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파주시

2월 15일 파주시 직원들이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분해를 촉진시켜 악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바실루스균’ 배양액을 투입하고 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련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를 접어도 될 듯싶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차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는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 매몰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정비·보완이 필요한 매몰지는 해빙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완료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낙동강 상류인 경북지역 89곳 매몰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4~28일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 양평·여주·남양주, 강원 원주·춘천, 충북 괴산 등 한강 상류지역 99곳의 매몰지에 대해서도 2월 10~14일 조사를 마쳤다.

이와 별도로 2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매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월 말까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40개 민관합동조사팀 1백60명을 투입해 전체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대처도 발 빠르게 진행된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유공관·관측정의 설치가 경미한 일반 매몰지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한다. 경사면에 의해 옹벽이 필요하거나 침출수를 막기 위해 차수벽이 필요한 곳 등 문제우려 매몰지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첨단 IT 기술 이용해 침출수 자동경보

이 같은 매몰지 정비·보완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 매몰지의 경우 1백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70퍼센트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우려 매몰지의 경우 이미 조사결과가 나온 경북지역 61곳에 대해 83억원을 배정했으며, 기타지역은 전수조사 후 추계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매몰지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총리실·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국토부 등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합동TF를, 수질·환경·토목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TF로 확대 개편해 매몰지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매몰지 관리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매몰지 관리실명제’는 전국 각 매몰지별로 실명의 담당 공무원과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실명의 담당자가 책임지고 매일 점검을 하도록 하여 매몰지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IT를 이용한 신기술도 도입된다. 정부는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SGIS)과 국토부 국가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매몰지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매몰지 관측정에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경보기를 부착해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자동경보가 울리도록 할 계획이다.

식수 걱정도 덜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매몰지 주변 마을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대책이 추진된다. 우선 매몰지 주변 3백미터 이내, 관정 3천 곳에 대해 수질조사를 실시한다.

동두천시

2월 15일 동두천 EM센터 직원들이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무차량을 이용해 축사 주변에 유용미생물(EM)을 살포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2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제역 대책회의에서 행자부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들과 전국 도지사들이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및 염소이온 등 4개 항목을 조사하고, 상수원 상류와 오염우려 매몰지 관정 1천 곳에 대해서는 살모넬라, 장바이러스 등 7개 항목의 미생물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를 통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관정이 발견될 경우 매몰지 인근지역에 비상급수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수도 보급 예산은 각 지자체별 소요액의 50~60퍼센트 수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매몰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확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안전한 물 공급·악취 제거 대책도 마련

매몰지 주변 악취 제거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탈취 효과를 보이고 있는 유용미생물(EM·Effective Microorganisms), 구연산 유산균, 바실루스균 등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친환경 탈취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사용 중이다. 정부는 효과분석을 토대로 전국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맹형규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와 돼지에 대한 1차 예방백신접종을 지난 설 이전에 완료했으며, 2월 말까지는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2월 들어 구제역의 발생 빈도와 매몰 두수가 차츰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치밀하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근심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의 매몰지 하나하나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몰지 주변의 깨끗한 물 관리와 국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

글·이제남 기자

매몰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언론의 구제역 매몰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구제역 매몰지 없다

일부 언론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축을 매몰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구제역 매몰지가 없다.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상수원으로 유출된 사례도 없으며, 비록 취수원에 유입되더라도 정수과정에서 완벽하게 처리돼 수돗물은 안전하다.

침출수로 인해 유출 가능한 미생물은 살모넬라, 바실루스, 장내세균 등이다. 그러나 정수처리시 완전 소멸되고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등의 무기물질 또한 정수처리를 통해 제거된다.

김포 지하수관정 폐쇄 침출수 영향 아냐

'김포서 침출수 유출 먹는물 첫 오염'이란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다. 조사결과,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의 지하수 관정 폐쇄는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영향 때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한 결과, 질산성질소가 25.1㎎/L(기준 10 이하)로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암모니아성질소(불검출)와 염소이온(147, 기준 250)이 동반 검출되지 않아 매몰지 침출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질산성질소의 수질기준 초과는 주변지역에 밀집된 축산단지로 인한 퇴비 및 비료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유출 침출수, 환경관리지침 따라 처리

최근 '핏물이 도랑을 타고 줄줄줄, 구제역 침출수 사진 인터넷 강타'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이미 1월 10일 원주시에서 환경관리지침에 따라 유출된 침출수 처리가 완료된 사안이다.

가축매몰지는 초기에 사체 분해과정에서 생석회, 가스 등으로 인해 가스배출관 등을 통해 매몰지 상부로 침출수가 일부 유출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해 침출수를 수집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용출된 침출수는 톱밥, 흙 등을 섞어 생석회로 소독한 뒤 매립지에 재매몰하는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낙동강 낙단보 공사 도중 발견된 마애불.

“낙단보 마애불 은폐·고의 훼손 없었다”

문화재청장 해명 회견 “제2 마애불도 곧 조사 착수”

지난해 10월 낙동강 낙단보에서 발견된 마애불과 관련해 은폐 논란이 이어지자 문화재청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미 발견된 마애불의 상단에 난 구멍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고 또 다른 마애불의 존재도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마애불상이 발견된 낙동강 낙단보 주변에서 또 다른 마애불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불교계의 지적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에 착수한다.

문화재청은 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또 다른 마애불은 이미 발견된 마애불보다 상류로 30~60미터 거슬러 올라간 ‘912번 지방도 하부의 어느 지점’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굴조사를 하려면 해당 도로를 폐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먼저 일제 강점기의 지도와 1960년대 촬영한 위성사진 등 자료를 분석하는 일을 시작할 계획이다.

땅에 묻혔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발견

이날 문화재청의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0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낙단보 마애불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정부가 낙단보 마애불상을 지난해 8월 처음 인지하고도 10월 발견한 것으로 발표해 국민과 종교지도자를 기만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 강행에 따른 의도적 훼손 의혹이 있고 문화재청 보호조치가 전무하며 ▲공사를 강행하려 마애불을 지방문화재로 격하하려 하고 ▲제2 마애불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2 마애불은 상호가 크고 강직한 모습의, 규모가 큰 부처님이었으나 1980년대 국도 공사 당시 도로 아래에 묻혔다”며 문화재 발굴조사와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마애불 주변 자연지형 살려 친환경적 정비

낙단보 마애불은 지난해 10월 6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낙단보 좌안에서 발견됐다. 이 암각화는 가로 1.57미터×세로2.20미터의 부처상으로, 마애불이 발견된 곳은 통합관리센터 부지 조성을 위해 쌓은 지방도(912호선) 아래쪽 비탈면이다.

성토돼 있는 토석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도로 비탈면 원지반(암반)에서 발견됐으며, 1980년대 경북지역 도로공사 절개지 확장공사로 인해 땅속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경북도가 사업시행을 했으며, 오랫동안 땅속에 방치돼 온 문화재가 이번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발견된 것이다.

낙단보 공사 관계자들은 마애불 발견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의성군 문화재과에 신고했다. 곧바로 문화재 전문가가 현지조사에 나서 보존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낙단보 통합관리센터 기존 조감도(왼쪽)와 수정 조감도(오른쪽). 마애불 위치를 중심으로 상류 쪽에 문화관, 하류 쪽에 전력제어동을 분리했다.

그동안 낙단보 마애불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해 온 문화재청은 마애불이 발견된 통합관리센터 시설물을 전력제어동과 문화관으로 분리해 설치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또 마애불 주변은 자연 지형을 살려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낙단보 마애불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 의성군청이 주민 제보를 받고 지난해 8월 현장조사를 했으나 별도 문화재 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마애불이 훼손됐다.

당시 의성군청은 주민 제보를 받긴 했으나 제보 내용만으로 마애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의성군지와 문화유적분포지 등 문헌상으로도 마애불 관련 기록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제보 지점이 도로의 하단부에 해당돼 복구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자체 종결처리했다. 제보 지점은 이번에 마애불이 발견된 곳보다 상류로 50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제보를 묵살한 결과 마애불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마애불 상단 오른쪽 광배 부분에 천공이 생긴 것은 의도적으로 천공 작업을 했거나 마애불 발견 후 고의로 훼손한 것이다.

마애불을 발견한 것은 낙단보통합관리센터 부지 뒤쪽을 지나는 도로 아래 경사면에 보강토로 옹벽을 시공하기 위해 원지반을 확인하는 천공작업을 하던 도중이었다. 해당 경사면은 과거 비포장도로 조성 당시 절취된 토석이 3~4미터 가량 덮여 있던 상태였으며, 옹벽 시공을 위해 토석을 모두 제거할 경우 도로붕괴 위험이 있어 경사면 안쪽의 지반상태를 확인하려고 바깥쪽에서 크롤러 드릴로 천공하다 마애불을 발견했다. 당시 천공작업에 사용된 드릴 크기도 명백히 발파용(35~75밀리미터)이 아니라 지반 확인용(1백5밀리미터)이다.

3. 마애불은 발견 당시 보물급으로 평가됐으나 공사 강행을 위해 지방문화재로 격을 낮추려 한다.

낙단보 마애불에 대한 가치판단은 문화재위원회가 학술적 요소를 고려해 검토한 결과다. 이번에 발견된 마애불은 고려전기 양식으로 제작된 작품이지만 완결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작연대나 경위 등을 보여주는 명문이 없어 학술적 중요성이 덜하다. 또 유사한 마애불들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

4. 낙단보 인근에 제2 마애불이 존재한다는 주민 제보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마애불의 존재에 대해 주민들의 증언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지난해 11월 주민 제보에 따라 한 차례 낙단보 마애불상 주변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도로의 붕괴위험으로 추가 확인조사는 하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주민 제보를 종합해 자료분석을 한 후 전문가 자문을 구해 실시할 계획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낙단보 마애불 발견 이후 보존대책 추진현황

2010년 10월 8일	암각화 발견 즉시 공사 중단, 의성군 문화재과에 신고
10월 8~13일	문화재 전문가 현지조사
10월 9일	조계종 총무원 현장조사팀 방문, 마애불 발견경위 등 조사
10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현장 방문, 마애불의 문화재 지정 요구
10월 29일	문화재청, 마애보살좌상 중요문화재(보물) 가지정
11월 3일	문화재위원회, 마애불 보호 및 안전대책 수립
11월 4일	조건부 허가 구간 공사 재개
11월 11~15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주변 안전진단과 제2 마애불 발굴 조사
11월 16일	김리나 문화재위원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12월 9일	문화재위원회,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권고
12월 16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재심의) 조건부 가결, 마애불상 전면 추가 확보(20m→25m) 및 조경계획 보완
2011년 1월	통합관리센터 보완 설계도서 제출 및 검토 문화관은 상류측, 전력제어동은 하류측으로 조정
〈향후 계획〉	
2월 중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보완설계 완료
6월 말	전력제어동 완공 예정
9월 말	문화관 완공 예정

최광식 문화재청장

마애불 발굴조사·보존에 최선의 노력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현재 4대강살리기 본류공사, 농지 리모델링, 준설토 적치장 조성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의 대상 중 88퍼센트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헤리티지 콘텐츠 서비스 제공 ▲문화재 환수 적극 추진 ▲문화재 보존 강화 등 향후 업무수행 방향을 밝히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 청장은 지난 2월 9일 취임했으며, 이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맡아 왔다.

최 청장은 4대강살리기와 관련해 ▲북한강 화천지구나 낙동강 양산지역은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하회보는 건설을 취소했으며 ▲금강보는 문화재 영향구역 밖으로 이격 건설하도록 설계변경 했고 ▲공주, 부여 역사문화지구의 지정문화재는 충분한 검토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낙단보 마애불과 관련해 "흙 속에 묻혀 계시던 보살상을 뵙게 된 것은 반가우나 훼손이 된 채 발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최 청장은 "훼손이 안면을 벗어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발견된 마애불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발굴조사와 안전진단 실시, 여러 차례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낙단보 통합관리센터를 멀리 이격시키도록 설계변경했고, 마애보살상 주변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최 청장은 "이번 낙단보 마애불 조사과정을 모든 불자와 국민이 뜻을 모아 지켜봐 달라. 그래서 온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희망했다.

수출금융은 원전 수주의 필수조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따른 수출금융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수출금융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형 프로젝트마다 좋은 조건의 수출금융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수출금융은 국제 수주시장의 관행일 뿐만 아니라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일본 열도에 낭보 하나가 날아들었다. 1백2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2기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에 일본이 우선협상권을 획득한 것이다.

전달인 9월 요르단 원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은 성과였다. 현재 일본은 터키와도 원전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 원전 1기와 UAE 원전 사업에서 러시아와 한국에 패해 자존심을 상한 일본이 '원전 강국'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낸 셈이었다.

일본은 해외 원전 사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도 전통적인 원전 강국이어서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DB

수출금융은 치열해지고 있는 해외 원전 수주 사업에서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꼽힌다. 두산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원자로.

그러나 일본의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다. 바로 금융이다. 일본은 원전, 고속철도, 플랜트 등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베트남 원전 수주에서도 일본의 수출금융이 빛을 발했다. 건설 대금의 85퍼센트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간 나오토 총리가 직접 베트남으로 날아가 790억 엔의 차관 제공을 약속한 것도 주효했다.

수출금융은 일반화된 금융기법

일본은 해외 건설 수주에 나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 엔 규모의 민관합동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를 조성하고 수출보험 확대를 검토하는 등 공격적인 수출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금융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서 일반화된 금융기법이다.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방법은 다양하다. 수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국내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 수입업자에게 수입대금을 대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줘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수출금융은 해당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건설 사업 수주에서도 수출금융은 기술과 경험, 재무능력 등과 함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의 도움 없이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다른 인프라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큰 원전 사업의 경우 금융의 역할은 더욱 크다.

대형 건설 사업에선 공사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기간' 금융이라는 점에 있다. 그 기간 중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래서는 기업이 수주에 나서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특히 후진국 공사의 경우 기업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수출금융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해외수주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발주국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이는 기업은 물론 발주국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도 한다.

대규모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더 좋은 금융 지원을 약속하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출금융이 해당 사업의 기술이나 경험 못잖게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이유다.

하지만 수출금융은 민간의 상업은행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다.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힘들다. 결국 수출금융은 대개 국가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미국은 수출입은행(EX-IM Bank)이 이 업무를 맡고 있고 한국은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을 관장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 수출금융 적극 확대

수출금융 사례는 숱하게 많다. 일본은 파푸아뉴기니의 LNG프로젝트, 칠레의 구리 광산 개발 사업, 베트남의 고품위 무연탄 장기 수급계약 등의 사업에 수출금융을 지원했다. 2009년 일본 JBIC의 수출금융 규모는 3조3천6백51억 엔에 달한다.

미국도 보잉사의 항공기 수출 등에서 막대한 수출금융을 실시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은 사우디의 정유설비와 싱가포르 석유화학설비 등을 지원했다. 1999년 이후 수출입은행은 34건에 100억 달러의 수출금융을 제공했다.

원전 수주에서 수출금융은 다른 분야보다 더 중요하다. 사업 규모가 워낙 큰데다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엔 발전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BOT(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사업이 늘고 있어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일본의 최근 수출금융 사례

일자	지역	프로젝트	거래
2009. 7	인도	화력발전 설비 제조 및 판매	대출
2009. 10	아부다비	담수화 사업(IWPP)	대출
2009. 12	한국	가스 복합 발전 부산물	대출
2009. 12	카자흐스탄	화력발전	대출
2010. 3	인도네시아	화력발전	대출
2010. 3	멕시코	화력발전	대출

출처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있다.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수출금융이 요구되는 이유다. 기술이나 경험만으로는 경쟁국을 따돌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원전 사업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가격 상승, 환경문제는 청정에너지를 요구했고 산업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은 대규모 전력시설을 원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외면받던 원자력발전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것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430기의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한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원전 건설 능력이 있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이 원전 수주에 국가적인 역량을 모으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베트남 원전의 건설 대금 1백 퍼센트를 지원할 계획이고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계은행의 원전 지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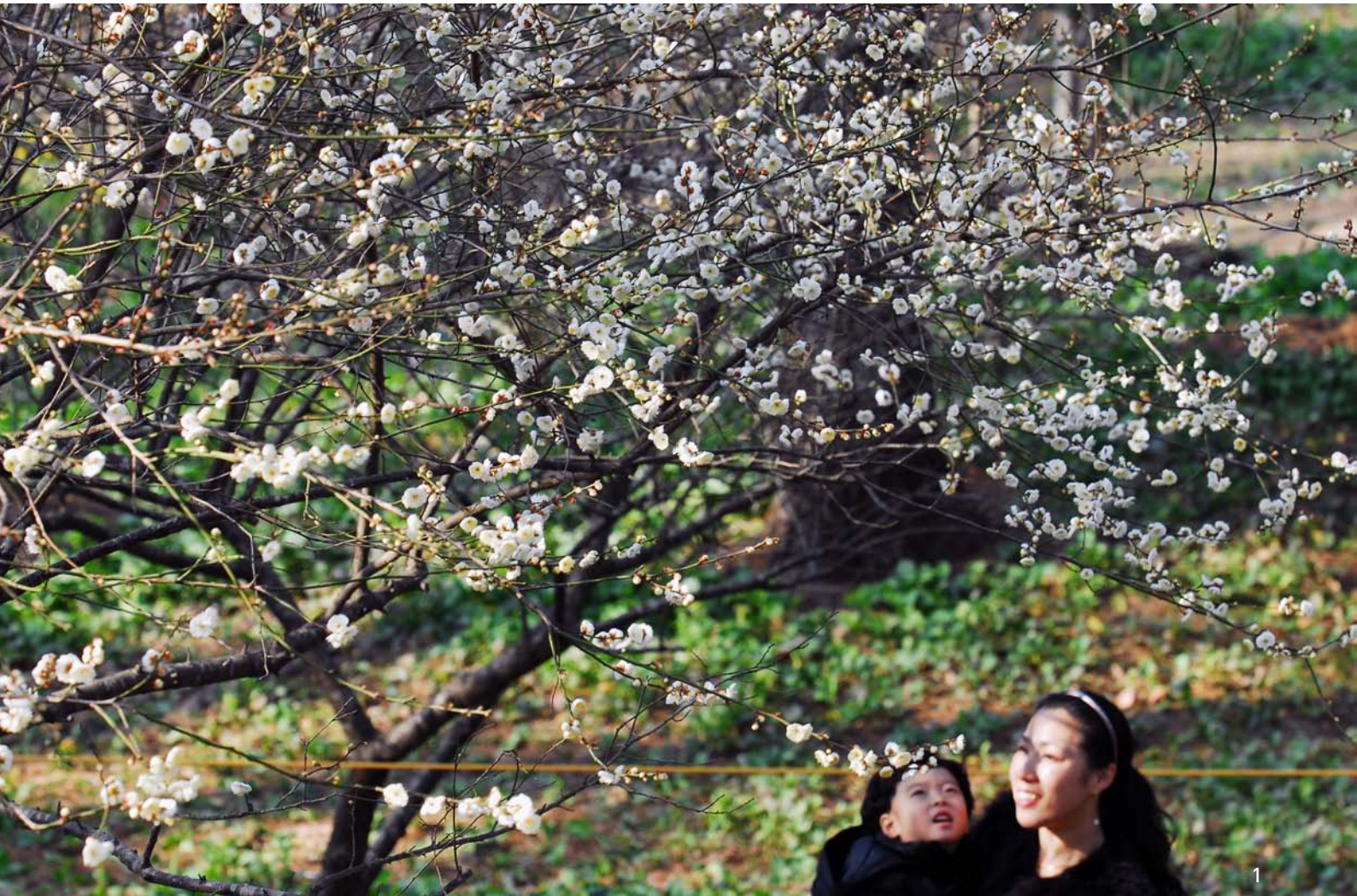
한국은 2030년까지 세계 시장의 20퍼센트인 80기의 원전을 수주해 세계 3대 원전 강국이 된다는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출금융을 강화해야 한다.

노승재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은 〈세계 원전 시장의 최근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도국 원전사업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재원의 원활한 조달은 원전 사업의 수주, 수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최근 개도국이 공급자의 재원조달의 조건으로 원전을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G

글 · 변형주 기자

한국전력

한국이 최초로 수주한 UAE 원전의 기반공사가 한창이다.

1

들리시나요 봄이 오는 소리

봄이다! 올해 유난히도 추웠던 한파를 뚫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지난 4일 입춘이 지나면서 전국은 봄맞이로 분주합니다. 제주도에는 벌써 매화가 폈다고 합니다. 꽃구경을 나선 사람들의 얼굴에도 덩달아 웃음꽃이 핍니다. 동물들도 봄맞이에 한창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하천이 녹으면서 새하얀 백로들도 신이 났습니다.

한편 뒤늦게 쏟아진 폭설로 영동 지방 주민들이 시름에 잠겼습니다. 군부대까지 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설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차가운 눈덩어리가 치워지듯 얼었던 주민들 마음에도 봄이 옵니다. G

글 · 이제남 기자

이종현 객원기자

연합

연합

연합

김현주 인턴기자

1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 2월 6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공원에 매화가 활짝 피어나며 주위에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2 2월 10일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들이 부산 북구 금곡동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저소득 가정의 이불을 빨아 건조하는 '봄맞이 세탁 봉사'를 하고 있다.

3 봄기운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겨우내 얼어붙은 하천 위에서 꼼짝 못했던 백로들이 2월 7일 얼음이 녹은 강원도 속초의 청초천을 찾아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4 2월 17일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비닐하우스에서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너진 비닐하우스 사이로 보이는 오이넝쿨이 차가운 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봄을 머금은 듯 파릇하다.

5 1월 31일 국립민속박물관 직원이 서울시 종로구 박물관 내 전통한옥 대문에 새봄을 알리는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을 쓴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신청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110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 110은 **정부대표전화**입니다.
- **317개**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를 **상담안내**해 드립니다.
- 이제 **110 하나**의 번호만 기억하시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0 상담내용

▶일반 민원 상담
전국 관공서 안내,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새 주소, 여권,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학교행정, 교육, 병무, 보훈, 건설공사, 주택건축, 인·허가 절차, 민원 처리 기관 안내, 정부통계 등 모든 행정 사무

▶세금, 공공요금 상담
양도소득세, 상속세, 관세, 취득세, 주민세,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벌금, 과태료, 수도요금, 연말정산 등

▶사회안전망 상담
일자리 안내, 기초생활수급, 사회복지, 서민금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비 지원, 채무 상담 등

▶생계침해 신고 상담
불법 사금융, 임금체불, 과다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금품 착취, 불공정 계약, 성 폭력 피해, 환경 피해, 보이스피싱, 교통불편 신고 등

110 서비스 안내

▶전화민원 "Happy Call" 서비스
기관에 연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드립니다.

▶수화상담 서비스
씨토크 영상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수화상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외국어상담 서비스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110 서비스
휴대전화로 110 모바일 웹페이지(m.110.go.kr)에 접속하시면 문자상담 예약상담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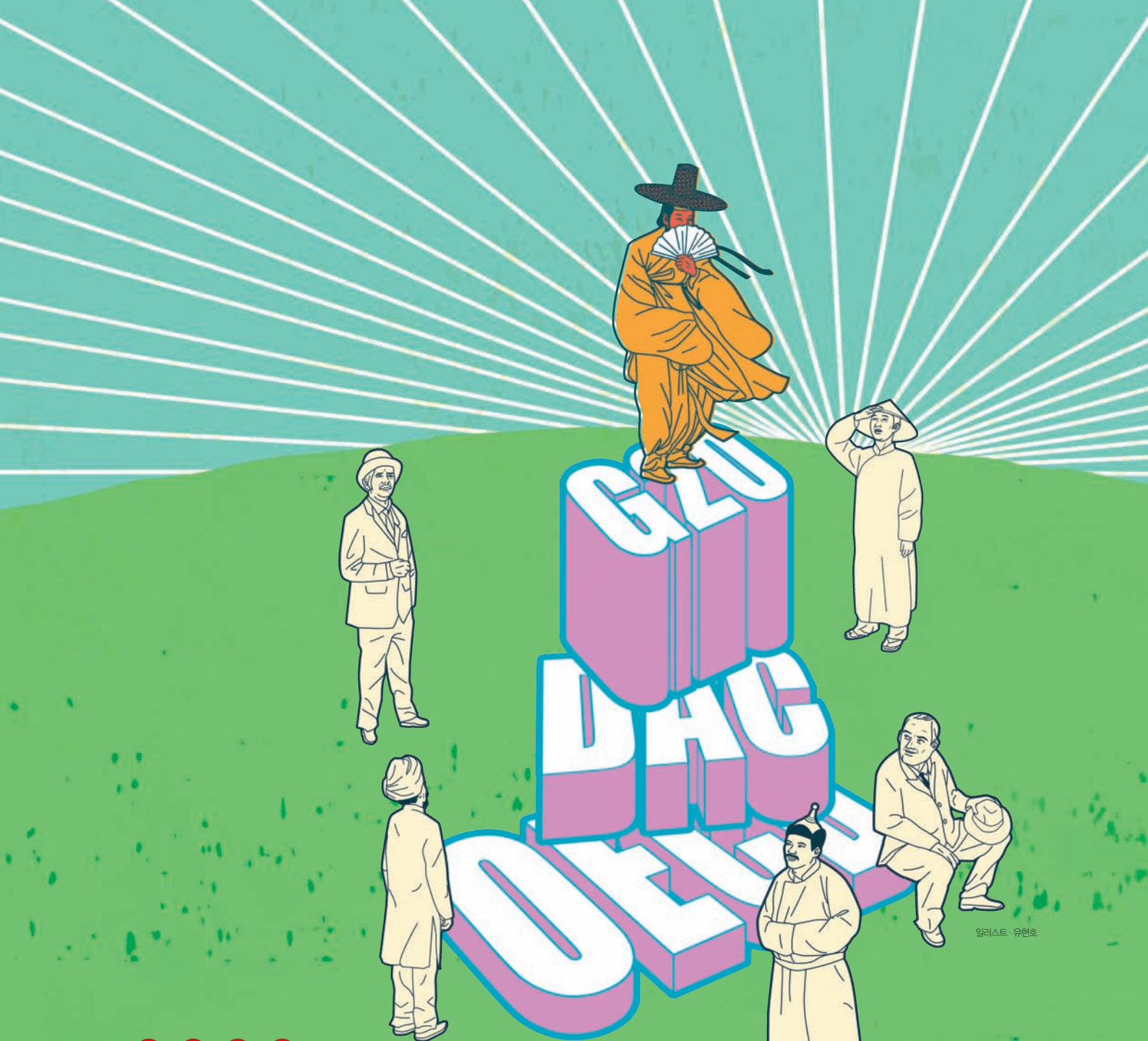
▶예약상담 서비스
110홈페이지(www.110.go.kr)에서 원하는 상담 시간과 내용을 예약하시면, 예약하신 시간에 상담사가 전화를 드려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민원 "Call Back" 서비스
심야 및 공휴일, 기관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의하신 경우 근무일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민원 상담을 해 드립니다.

▶문자상담 서비스
민원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문의 내용을 보내면 상담사가 문자메세지로 신속하게 문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110 이용안내

상담 시간 – **평일** : 오전 8시 ~ 밤 9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미근동 257)

기 획 특 집

주목받는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했던 지난 3년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행보를 해 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세계 첫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신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되살아난 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일류국가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서 멈출 수 없습니다.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세상에 우뚝 선 코리아

지난 3년 이명박정부가 안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펼쳤다면 밖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국가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글로벌 이슈의 주도국으로, 그리하여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오도릭의 〈동유기〉,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와 함께 '세계 4대 여행기'로 꼽히는 신라승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1283년 만의 귀향이다.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정치·문화·경제·풍습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에서 4월 3일까지 공개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여행기인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폴 펠리오가 중국 북서지방 간쑤성의 둔황(敦煌) 천불동 석굴에서 발견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요즘 같으면 '20대 배낭여행족'이었을 혜초는 온라인 블로그 대신 한 자 한 자 두루마리 필사본으로 여행기를 남긴 것이다.

통일신라 시대인 704년 출생한 스무 살 청년 혜초는 바랑 하나 메고 723년부터 4년 동안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를 다녀와 고행의 순례와 문명 탐험의 기록을 작성했다. 혜초가 떠나온 신라 역시 인도와 중국, 아라비아와도 교역을 하고 인적 교류가 있었던 '글로벌 국가'였다.

당시 신라인들이 '천축국'으로 부른 인도로 가는 혜초의 길은 히말라야의 설령(雪嶺)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 멀고도 멀었지만 그로부터 1200여 년 뒤인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인도는 우리에게 이미 가까운 나라였다.

조선DB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에 취재 중인 외신기자들의 모습. 우리나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무대의 중심국가로 도약했다.

인도는 이 대통령이 방문 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나라다. 이 대통령은 인도 순방길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활발한 실용외교를 펼쳤다.

룰을 만드는 '룰 메이커'로 위상 업그레이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인도 방문을 포함한 31차례의 해외순방을 통해 실용외교를 펼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여 왔다.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아시아의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신아시아 외교 구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 6월 제주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개발 의제'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며 '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2개 의제, 그리고 주요 의제 아래의 세부 항목에 녹색성장을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단숨에 높였다.

다섯번째 G20 정상회의인 서울 G20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총집합한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해 G20에 있어서의 민간부문 참여와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일을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진 국가로 성큼 성장했다. 그동안 다른 나라가 만든 룰(rule)을 따르는 '룰 테이커'에서 룰을 만드는 '룰 메이커'로 위상이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발언권이 커진 데 따른 책임도 충실히 수행했다. 지난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자리바꿈을 했다. 또 인

조선DB

G20 정상회의 본회의가 끝난 2010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주의 실현과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등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 7월 발효됐다. 개도국과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했다.

FTA 다각화 통해 세계 최대 경제영토 이룩

우리 군의 해외파견도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활동의 성격도 유엔 요청에 따른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에서 한걸음 나아가 아이티의 재난복구와 아프가니스탄의 지역개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교류 활동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의 글로벌 분야 3년 성과로 자유무역협정(FTA) 다각화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 '경제영토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한민국'이 된 일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아세안(ASEA) FTA의 서비스와 투자, 한·인도 CEPA가 발효됐고 지난해 10월 한·EU FTA에 정식 서명했으며 올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한·페루 FTA에 가서명했고, 미국과는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을 진행하는 등 협상의 조속한 인준과 발효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미 전략동맹을 심화 발전시켜 왔다. 지난해 6월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연기하는 데 합의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의 합동회담인 2+2 회담이 역사상 최초로 열려 양국이 돈독한 전략동맹 관계임을 과시했다.

글로벌 분야에서 '코리아'의 이름을 빛낸 것은 비단 정부뿐만 아니었다. 올림픽 사상 처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수영종목 금메달을 목에 건 박태환, 2010년 1월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처음 피겨여왕에 등극한 김연아, 동양인 체격조건으로 불가능하다던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 남녀 금메달을 딴 모태범과 이상화, 지난해 9월의 U-17 여자축구월드컵 우승 등 대한민국 국민들도 곳곳에서 당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고행길을 걸었던 혜초의 후손들이다. 어쩌면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노마드(nomad, 유목민)'의 유전자가 있는지도 모른다. 21세기에 새롭게 열린 글로벌 세상에서 한국, 한국인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앞으로 앞으로 힘차게 유영하고 있지 않은가. G

글·박경아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어 치른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2010년 11월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과시한 '국운융성 이벤트'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끝나고 '서울 선언'이 발표됐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이 주최하는 첫 G20 정상회의라는 점,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란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the Crisis)'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11월 11,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운 융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글로벌 이벤트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 정상 21명(회원국 정상 19명과 유럽연합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2명), 비회원 초청국 정상 5명, 7개 국제기구 대표 등 33명의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은 약 4천명, 이를 취재할 기자단만 4천2백38명이 등록했다.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였다.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진화를 위해 긴급하게 결성된 G20 정상들의 실질적 협의기구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첫 G20 정상회의가 개최돼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를 논의했다. 이후 영국 런던(2009년 4월), 미국 피츠버그(2009년 9월)에서 잇달아 G20 정상회의가 열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이 되어 왔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시기적으로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beyond crisis era)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됐다.

非G7·아시아 첫 회의로 더욱 주목받아

서울 G20 정상회의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G20 국제공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대두된 가운데 G20 회원국들의 정책 공조를 재확인하고,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G20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비(非) G7국가에서, 그리고 새로운 경제중심축의 하나로 떠오른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조선DB

다시 보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일시 2010년 11월 11·12일
개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코엑스
참가 현황
G20 회원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EU
5개 비회원 초청국 에티오피아, 말라위, 스페인, 싱가포르, 베트남
7개 국제기구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서울 선언의 내용
본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 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무역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 등에 대한 합의
※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며, 첨부문서는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약표' 등 3개 부속서
의의
G20 정상회의 최초로 '비즈니스 서밋(11월 10, 11일)' 개최
환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시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도입
참가 규모 면에서 역대 G20 정상회의 중 최대 규모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신흥국 그룹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간의 선진국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신흥국 관심 이슈를 G20 중점 의제로 추진했다.

회의 개최 직전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환율 문제에 대해 '시장 결정적(market-determined)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하고,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에도 합의해 '환율 전쟁'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울선언을 발표하며 "환율 문제 등이 합의된 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 경제위기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 방향에 합의하고,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해 정상들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 것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최대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위상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주도의 신규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를 이뤄 국제무대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뜻 깊었다.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비즈니스 서밋도 지속적인 개최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최고위급·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인 비즈니스 서밋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고 지속 개최를 지지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가진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프랑스가 보관 중인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반환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당시 이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갱신 가능한 대여'를 조건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우리나라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국제무대서 이니셔티브를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

이 밖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의 자긍심이 고취됐던 사실도 잊을 수 없다. 당시 회의 기간 중 서울 도심에서 많은 각국 대표단과 취재진이 몰려 교통대란이 우려됐으나 시민들이 자율적인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해 회의장 주변은 물론 서울 시내 교통량이 회의 기간 중 급감했다.

이렇게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주인이 되어 치른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분야 국제회의였던 동시에 우리의 국가적 역량과 국민의 시민의식을 한 단계 높인 국제행사였다는 점에서 오래도록 우리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조선DB

자유무역협정(FTA)는 수출증가, 무역 흑자 확대, GDP성장률 촉진 등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최대의 가전전시회인 IFA에 참가한 한국 기업의 전시장.

대한민국 경제영토 전세계 60퍼센트!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크게 확대됐다. 국토는 비록 세계 0.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경제영토는 60퍼센트에 이른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덕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협정을 더하면 전세계 92퍼센트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된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80퍼센트를 넘는다. 수출이 흔들리면 존립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수출길을 더 탄탄하게 다지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FTA의 문이 활짝 열렸다. 특히 지난해의 성과가 컸다. 새해 벽두부터 인도와 FTA가 발효됐고 10월에는 한·EU FTA가 정식으로 서명됐다. 이어 11월에는 페루와 FTA 서명을 했고, 12월에는 미국과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을 잇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들 국가는 세계 인구의 38.5퍼센트, 세계GDP의 59.4퍼센트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성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세계인구의 29.4퍼센트, 세계 GDP의 55.1퍼센트를 차지하는 전 세계 30개국과 FTA를 맺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있다"며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외교와 안보 등 비경제적 측면의 크다는 설명이다.

한·미 FTA

한·미 FTA 체결 과정은 한마디로 '난산'이었다. 2006년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공식 발표한 후 이듬해인 2007년 4월에 타결이 되고 6월에 공식 서명이 이뤄질 때만 해도 순탄해 보였다.

하지만 미국 내의 정치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한·미 양국 정상은 2010년 6월 추가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3일, 첫 합의 후 3년5개월 만에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한·미 FTA의 효과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5번째 교역국인 만큼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발효 후 10년 간 GDP는 6.0퍼센트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2백9억 달러 불어난다.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억6천만 달러가 늘고 대세계 무역흑자도 19억6천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에도 훈풍이 분다. 단기적으로는 5만7천 개의 일자리가 순증하고 장기적으로는 8만3천 개에서 33만6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6만9천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분석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연평균 23억~32억 달러가량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강화되고 국내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면서 투자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교역이 확대되면 한국의 안보 리스크가 감소하고 그 결과 전체적인 대외신인도와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한·EU FTA

EU와 FTA 협상은 2007년 5월 시작됐다. 이후 2년 동안 8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2009년 3월 대부분의 협상을 마쳤다. 같은 해 7월에 EU 의장국인 스웨덴과 정상회담에서 협상 종료를 선언, 사실상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다만 27개에 이르는 EU 회원국 모두의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식발효는 늦춰질 수도 있다. 이에 한국과 EU는 잠정발효를 합의했다. 개별 회원국의 비준 없이 EU 이사회의 승인과 EU 의회의 동의만으로 FTA가 발효되도록 한 것이다. 한국의 첫 번째 FTA인 한·칠레 FTA에서도 잠정발효가 실시된 바 있다.

한·EU FTA도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DP는 최대 5.6퍼센트 증가한다. 단기적으로는 0.1퍼센트 정도의 증가에 머물겠지만 자본축적과 생산성이 향상되면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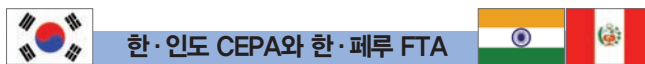
구분	인구 비중	전세계 GDP 비중	국가수 2010년	우리 교역 비중
기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26.2%	6.5%	16	14.4%
타결 또는 서명 미국, EU, 페루	12.3%	52.9%	29	21.4%
협상 중 GCC, 호주,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4.86%	8.7%	29	15%
여건 조성 중국, 일본, 한중일, 이스라엘, MERCOSUR, SACU, 러시아, 베트남, 몽골, 중미	30.14%	23.81%	20	30.73%

출처: '2010년 국정운영 성과'

지난해 말 추가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GDP를 6퍼센트가량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 장기적으로 GDP 기여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후생 수준은 GDP 대비 3.8퍼센트인 3백20억 달러가 증가한다.

일자리는 25만 개가 창출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21만9천 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3만3천명)과 농수산업(1천명)이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하지만 FTA 이후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일자리 증가는 4만8천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25억3천만 달러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은 21억7천만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3억6천만 달러의 흑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 CEPA와 한·페루 FTA

지난해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다)는 세계 4위의 거대시장(구매력 평가 기준)인 인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인도는 한국이 강한 전기전자, 운송, 기계 산업의 비중이 낮은 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IT서비스와 제약 산업이 발달해 경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의해 개방의 수준도 높다.

CEPA의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양국의 교역 규모는 44.5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이 80억1천만 달러에서 1백16억4천만 달러로, 수입은 41억4천만 달러에서 59억2천만 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역흑자는 57억 달러로 47.6퍼센트 불어났다. 정부는 인도에 대한 정보제공 채널을 다양화해 현재 16.4퍼센트에 불과한 수출 활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페루 FTA는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업종의 수혜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적자였던 무역수지도 수출이 늘면서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자원부국인 페루의 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졌다. G

글·변형주 기자

원조 받다가 원조하는 최초 국가로

해방 이후 50년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 왔던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출범 15개월 만인 2009년 11월 2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나라가 됐다.

KOICA

2010년 11월 25일 KOICA에서 열린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1주년 기념식. 이날 '국제개발협력의 날' 선포식도 가졌다.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UNDP(유엔개발계획) 중심의 국제사회 원조를 받아 왔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50년간 지원받은 공적개발원조액은 1백27억 달러에 달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0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굵직한 국제 행사를 진행하고 꾸준히 공적개발원조도 해 왔지만, 국제사회에서 '원조에 힘입어 성장했다' 내지는 '원조를 받은 나라'의 이미지는 씻어 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1월 25일, 전 세계 원조의 90퍼센트를 담당하며 국제 원조를 주도하는 OECD 산하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달라졌다.

50년간 1백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던 가난한 나라에서 되레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G20 정상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이뤘다.

OECD DAC는 OECD 산하 26개 위원회 중 하나지만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OECD의 3대 위원회로 간주될 만큼 높은 위상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DAC 관찰자 자격을 취득해 주요 회의에 참석해 왔다. 2005년도 11월 국무회의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을 채택했다. 2010년 전후를 DAC 가입시점 기준으로 검토하되 원조 목표 달성 추이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회원국 전원 합의로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2007년 11월, DAC는 한국개발협력에 대한 특별검토 실시를 결정했고 2008년 3월 DAC 실사단은 한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관련 3개 부처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2008년 9월, DAC의 한국 대외원조 특별검토회의 서울 개최, 2009년 4월 우리 정부의 서면심사 자료 제출, 6월 DAC 방한 실사를 거쳤다. 그리고 11월 25일 최종적으로 한국의 DAC 가입심사 특별회의가 DAC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 전원합의로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이 확정됐다.

OECD DAC 가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원조 공여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해방 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1백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그들과 파트너가 돼 개발도상국들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도 DAC 회원국의 위상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3년 주기인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HLF-4)도 부산에서 열린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등 ODA 관련법 마련

DAC 회원국이 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1990년대 이후 20년 넘게 원조 공여국으로 활동해 온 우리나라의 ODA를 좀 더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정신과 목표, 원칙, 추진체계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평가 실시를 통해 성과중심의 ODA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ODA 추진에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해 현장중심 ODA 틀을 갖추게 됐다.

범정부적 ODA 추진체계도 재정비했다. 그간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로 지적돼 온 분절화 문제를 해결해 국무총리실에 '국제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했다. 국무총리실은 ODA의 주요 정책을 결정해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 원조를 위해 외교부를 주관 기관으로 하는 무상원조협의체를 설립했다. 대표적으로 해외파견 봉사단의 경우 그동안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KOICA 등이 각각 지원하던 사업을 이를 통해 WFK(World Friends Korea)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원조를 하게 됐다. WFK를 통해 2011년 2월 현재 총 1천8백여 명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중동 지역 등 46개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지원하고 있다.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17개 무상원조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함께 ODA 선진화 방안을 수립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창섭 KOICA 정책기획팀장은 "ODA 선진화 방안은 우리나라 최초로 범정부적으로 합의한 ODA 정책문서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하기까지는 ODA의 힘이 컸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2002년 2억7천8백80만 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09년 약 8억2백3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이전 연도와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해, 2009년 기준 약 8억 달러를 기록했다.

KOICA

세네갈 까올락 유아교육청 유아교육분야 단원의 봉사활동 모습. 현재 해외 봉사활동은 WFK에서 체계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있다.

GNI(국민총소득)대비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처음으로 0.1퍼센트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AC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가장 낮은 규모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12년까지 0.15퍼센트, 2015년까지 0.25퍼센트로 점진적으로 증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후 무상원조 부문 양적 성장

ODA 선진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유상협력 분야에서는 50퍼센트, 무상협력 분야에서는 1백 퍼센트까지 확대한다. 해외긴급구호 규모도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6퍼센트까지 높일 계획이다. 유상협력 분야의 경우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지원지역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성장을 위한 녹색분야에 대한 지원을 30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 등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가입심사 당시 권고사항에 속해 있던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비율을 2015년까지 50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조의 질적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박대원 KOICA 이사장은 "ODA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KOICA도 원조현장 중심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에 진행됐던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 ODA 확대 정책에 발맞춰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보다 효과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원조사업을 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

글·박근희 기자

청와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11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 도복을 선물 받은 후 정권 지르기 자세를 취해 보이자 이 대통령도 따라 하고 있다. 굳건해진 한미동맹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실용외교 바탕 한미동맹 복원·강화

이전 정부에서 느슨해졌던 한미동맹은 복원, 강화됐다. 한미동맹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까지 확대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만들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 국정연설에서도 한미동맹 의지를 천명했다.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실용외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 이렇게 언급했다.

"한반도에서 우리의 동맹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 폐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한미동맹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지난 정부 시절 많은 국민이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한미동맹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한미동맹의 복원, 나아가서는 진전(進展)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다.

한미동맹의 완전한 복원과 진전은 이명박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산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켜 나가겠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 정부에서 다소 느슨해진 한미동맹 복원은 물론이고 좀 더 진화한 한미동맹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국가수반으로서 이 대통령의 첫 방문지도 미국이었다.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국빈(國賓)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에 의견 일치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제정세와 안보 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의 전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데도 합의했다. 우리의 무기구매국(FMS) 지위도 격상시켰다. 3백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 대학생연

수취업 프로그램 도입 등도 합의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확장시킨 것이다.

공고해진 한미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6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했다. 이 비전은 기존의 군사,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뜻이다.

부시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2008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고 구체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명시했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이 체결된 셈이다.

북한 도발에 강력한 공조체제 구축

한미동맹의 강화는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단호한 대응 및 긴밀한 공조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직후 서해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당시 미국은 역대 어느 한미연합 훈련보다 최강의 전력을 동원했다.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사일 순양함 카우펜스함(9천6백톤급), 구축함 샤일로함(9천7백50톤급), 스테담호, 피체랄드함 등 막강한 해상전력을 투입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도 한미 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 공조했듯이 북핵과 미사일 등 대북 문제 공조에 있어서도 양국은 '이견 없는 강력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 관계 형성의 뿌리는 실용외교다. 대미 외교에 반영된 현 정부의 실용외교는 주변 강국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조선DB

2010년 11월 12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 참석한 사르코지 대통령.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외규장각 도서 5년 단위 대여갱신'에 합의했다.

일본과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중시하는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 내에 '일본 부품소재 전용 공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 경제를 넘어 정치와 안보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다. 2008년 5월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무역규모 확대와 FTA 체결 검토에 합의했다.

러시아와도 경제협력 확대 합의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한러 양국은 2008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상해 온 양국 간 '철(鐵)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등 3대 신 실크로드 비전이 정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용외교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 협상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다.

프랑스 정부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가져간 외규장각 도서 2백97권을 오는 5월 31일까지 한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외규장각 도서는 1993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 반환 약속을 한 이후 17년을 끌어온 과제였다.

문화재 반환과 UAE 원전 수주서 빛난 '실용외교'

우리 정부는 '반환'을 요구했고, 프랑스는 '반환'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 정부는 '반환' 대신 '영구 대여'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프랑스는 '갱신 가능한 대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프랑스가 제시한 대안에 '5년마다 따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대여를 자동 연장한다'는 조건을 달아 협상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실제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실리를, 프랑스는 대여 형태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명분을 살린 윈-윈 협상이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2월 26일 전격적으로 UAE를 방문했다. 예정에 없던 방문으로 국내 기업의 아랍권 최초의 원전 사업인 UAE 원전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UAE 원전 수주는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 사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47조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사업의 크기도 크기려니와 한국형 원전의 첫 해외 진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사업이었다.

다음 날인 27일 오후 이 대통령은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 수주를 확정했다.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보다 앞서 나가던 프랑스 컨소시엄을 제친 것이다.

국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권위를 벗어버린 실용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다. G 글·김성동 기자

‘코리아’ 인지도 · 호감도 업&업!

과거 브랜드의 가치는 주로 기업의 상품이나 이미지에 국한됐지만 요즘에는 ‘국가브랜드’가 중요하다. 이명박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을 정부의 4대 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2008년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글로벌 리더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내면서 세계 경제 변방국에서 중심국가로 도약했다.

그동안 ‘분단국가’, ‘외환위기 국가’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받아 왔던 우리로서는 세계 30위에 머물러 있던 국가브랜드 가치를 단숨에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게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평가다.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인지도가 올라갔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TNS 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10년 11월 15~21일 해외 16개국 성인남녀 4천명(G20 10개국, 비G20 6개국 각 2백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가 75.3퍼센트로 나타났다. 정상회의 전에 비해 3.6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 상승 효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1조8천억원의 가치가 있다.

호감도 역시 60.6퍼센트로 크게 상승했다. 응답자의 88.1퍼센트는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답했고 80.7퍼센트는 한국 제품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해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국가 위상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 역점을 둬 왔다. ‘국가브랜드’란 국가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008년 독일 안홀트 국가브랜드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50개국 중 33위로, 세계 13위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취약한 실정이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러한 저평가 현상은 한국산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쳐 모든 면에서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한국산은 미국산에 비해 66~67퍼센트 수준으로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브랜드 상승은 한국상품 재평가로 이어져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국가브랜드의 가치는 상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선진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 평판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 설치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며 현 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2009년 1월 22일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5대 분야를 꼽았다. 5대 역점분야는 ▲국제사회 역할 제고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다문화 포용·외국인 문화 이해 ▲문화·관광 매력도 증진 ▲첨단기술·제품 홍보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선정해 국가브랜드 제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딩 사업이다. 우리나라 정

조선DB

2009년 12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지난해 10월 열린 ‘인도네시아-코리아 위크’의 개막식을 장식한 패션쇼.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009년부터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발전 및 문화 협력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2010년 10월 개최된 제2기 코리아브랜드 커뮤니케이터 위촉식. 이들은 활발한 온라인 활동으로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다.

2010년 국가브랜드지수 (SERI-PCNB NBDO)				
2010년 순위	실체		이미지	
	국명	2009년 순위	국명	2009년 순위
1	미국	1	독일	5
2	독일	2	캐나다	8
3	영국	4	일본	2
4	프랑스	3	미국	6
5	일본	5	영국	4
6	스위스	7	스위스	7
7	호주	9	프랑스	1
8	스웨덴	6	스웨덴	3
9	캐나다	8	이탈리아	10
10	네덜란드	10	호주	11
비고	한국 (18위)	19	한국 (19위)	20

자료 · 국가브랜드위원회, 삼성경제연구소

부파견 해외 봉사단은 세계적 규모(2008년 기준 58개국 총 2천59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부처의 산발적인 봉사단 파견과 사업명칭 다원화로 인해 국가브랜드 구축 효과가 미흡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합의해 해외봉사단 대외 명칭을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로 단일화했다. 국가대표성을 강화한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드 'World Friends Korea'는 2009년 5월 공식 출범해 해외봉사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 확대, 해외봉사단 파견,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을 최우선 사업으로 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다.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한다.

이제 '세계인이 살고 싶어하는 글로벌 코리아'로

불과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해외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해외원조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로 위상이 변했다. 해외원조의 양적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09년 ODA 지원금액은 약 1조3백9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16.7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대한민국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도 추진한다. 이 같은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외국인을 포용하는 문화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고취시킨다.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배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확충, 전자민원서비스 개선 등으로 '세계인이 살고 싶어하는 글로벌 코리아'로 브랜딩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도 강화됐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한식, 한복, 한옥 등 한국적 스타일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오페라, 무용, 미술 등 문화 · 예술 분야에서도 국가브랜드 상품을 만들기에 한창이다. 국내외 한국어 강좌명을 '세종학당'으로 통합 브랜드화하여 한국어 보급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에도 나선다. 명동, 동대문 등 주요 관광지에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하고 다국어안내 시스템, 간판정비 등 관광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이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고 있다.

직접적인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공익광고, 외국인맞이 범국민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 등이 그 예다. CNN · BBC와 같은 해외 유력매체를 통해 한국을 바로 알리고 온라인을 통한 한국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가브랜드지수 'SERI-PCNB NBDO' 2010년도 조사 결과, 총 50개국 중 한국은 전년대비 국가브랜드 실체 부문 18위, 이미지 부문 19위로 모두 한 단계씩 상승했다.

실체 브랜드 순위에서 한국은 '과학/기술(4위)', '현대문화(9위)', '유명인(9위)'의 3개 부문이 10위권이며, '전통문화/자연', '국민' 부문이 2009년에 비해 2~3단계 상승했다. 원전수출,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동계 올림픽의 쾌거, 월드컵 축구 16강 및 K-pop 열풍, G20 의장국으로서 외교정책 등은 대한민국 브랜드 실체 개선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은 "한국의 경제, 기술력 등과 같은 하드 파워는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문화, 관광 등과 같은 소프트 파워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국가브랜드는 국격이다. 품격있고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소프트 파워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제남 기자

2010년 10월 25일 9인조 여성그룹 '소녀시대'가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을 찾아 국민들이 직접 정상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G20정상에게 말하세요'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 1월 13일 열린 '2011 콘텐츠 한마음 신년 인사회'에서 한류유공자 표창을 받은 정우성, 그룹 카라, 이승기(왼쪽부터).

드라마서 가요로… '동방의 할리우드' 찬사

한류는 중화권, 일본, 몽골,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동유럽, 중남미 등에서 기세를 떨쳐왔다. 그런데 2010년부터 양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른바 '신한류'로 통칭되는 다양한 한국문화가 한류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 더욱 뿌리를 내리는가 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는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한류 드라마와 가요가 퍼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 한류 포럼'을 통해 K-POP(한국 대중음악)으로 재점화된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신한류 진흥 및 확대를 위한 4개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한류정보장터, 글로벌 한류지도, 한류스타의 거리, 중남미 및 유럽 지역과의 문화교류 등 한류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류 붐의 세계적 확대를 꾀하는 전략이 담겨 있다.

문화부는 '2010 한류지수'와 '한류 핫이슈 10'도 발표했다. '2010 한류지수'는 2009년도를 1백점으로 했을 경우 1백1점으로 나타나 소폭 상승했다. '한류 핫이슈 10'은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의 3천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류 뉴스는 무엇인가?'라는 항목으로 조사했다. 1위는 '문화한류에서 경제한류로 진화: 한국 전자제품 인기', 2위는 '한식 한류,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3위는 '일본 내 한국가요 열풍'이었다.

이날 포럼에서 고정민 창조산업연구소장은 "베트남, 태국의 경우 드라마, 음악, 게임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밝혔고, 경희대 김주연 교수는 "2010년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조사국가에 거주하는 현지인이 한식을 먹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동시에 한국산 전자제품의 선호도가 동반 상승했으며, 한국 화장품의 아시아 수출이 30~40퍼센트 늘어났다"고 했다. 2011년 새해 들어서 나온 한류에 대한 외국 언론 보도들도 흥미롭다.

미국의 CNN은 "한류로 통칭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휩쓸면서 한국이 '동방의 할리우드'로 올라섰다"고 했다. 프랑스는 국영방송 신년특집에 2시간 가까이 한류와 한국에 대한 찬사를 담았다. 이 방송은 "한류의 힘이 일본을 눌렀고 한류의 격류가 프랑스까지 휩쓸 기세"라고 보도했다.

문화·경제·한식으로 영역 지속적으로 넓혀

지금까지 한류는 중화권, 일본, 몽골,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동유럽, 중남미 등 70여 국가에서 기세를 떨쳤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유입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양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른바 '신한류'로 통칭되는 다양한 한국 문화가 한류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 더욱 뿌리를 내리는가 하면, 선진국에는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한류 드라마와 가요가 퍼지면서 기반을 넓히고 있다.

최근의 한류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상승 작용하는 관계로 발

말레이시아인 1250명이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지난해 5월 '사랑해요 코리아클럽(SKC)'해 결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무역규모 7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새마을운동 개도국 수출, 일본의 한국 벤치마킹 등으로 표출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제품, 서비스, 관광, 한국어 학습,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한류와 경제가 어우러져 상승작용을 하는 예는 많다.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70퍼센트, 중앙아시아 가전제품의 80퍼센트를 한국이 석권한 것도 한류의 영향이 크다.

경제적 위상과 상승작용… 한국 선호도 높아져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한 것도 한류 드라마가 UAE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일과 무관하지 않다. 이집트, 이란, 인도, 짐바브웨 등 우리와 피부색, 종교, 사상과 체제가 판이하게 다른 나라에서도 〈대장금〉에 심취하고 〈올인〉에 빠져들면서 드라마 속 한국 제품, 라이프스타일, 전통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신한류는 사실상 아이돌 가수를 중심으로 조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드라마가 한류의 핵심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음악 중심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한류(韓流)'의 태동 시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CCTV 전파를 타면서 무려 1억5천만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이후 〈별은 내 가슴에〉의 안재욱, 〈의가형제〉의 장동건, 〈모델〉의 김남주 등이 한류 1세대로서 인기 열풍을 이끌었다. 이 시기 가요계에서는 남성 듀오 클론을 포함해 HOT, 젝스키스, 신화, SES 등이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강타했다.

한류 1세대가 중국을 기점으로 했다면, 한류 2세대는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액션 블록버스터 〈쉬리〉가 2000년 일본 극장가에서 인기를 끌더니 2003년 4월 KBS2 드라마 〈겨울연가〉가 NHK 위성 제2방송에 소개되면서 '욘사마' 배용준 신드롬이 탄생했다.

이후 이병헌, 송승헌, 원빈, 권상우, 최지우, 이영애, 소지섭, 송혜교, 비 등이 한류 스타로서 떠올랐다. 가요에서는 조용필, 계은숙, 김연자 등이 일본 엔카에서 일찍이 주목을 받았으나 탄탄한 실력과 체계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은 보아(BoA)였다. 2001년 일본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진 보아는 K-POP 열풍의 선두주자로 활약했으며 이후 동방신기, SS501, 슈퍼주니어, 빅뱅 등 아이돌 스타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신한류, 유튜브 통해 전 세계 구석구석 전파

2010년 들어 한류는 세 번째 전환점을 맞이했다. 장근석, 김범, 이민호 등의 젊은 한류 스타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걸그룹 소녀시대, 카라, 포미닛, 브라운아이드걸스, 원더걸스 등이 3세대 한류 스타로서 신한류를 이끌고 있다. 2PM, 2AM, 대국남아, 비스트 등 남성 아이돌 그룹과 바비킴, 휘성, 케이윌 등이 속속 일본과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신한류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 40~50대 아줌마 부대에서 10~20대로 팬층이 젊어졌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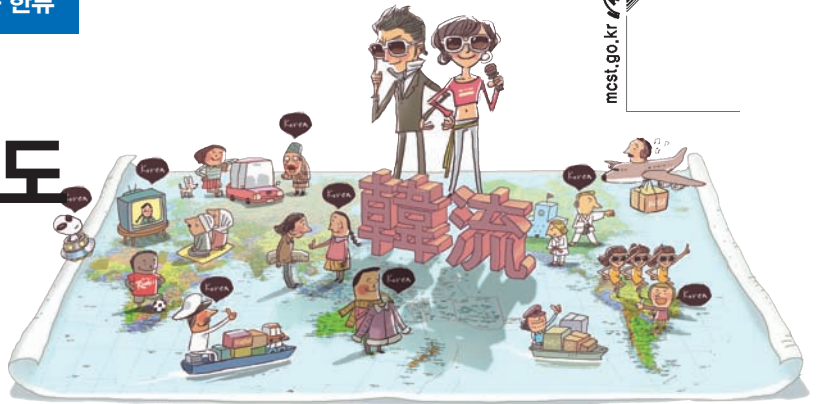
사실 신한류의 태동은 이미 예견됐다. 여성그룹 '원더걸스'가 미국에 진출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고, 〈노바디〉가 빌보드 차트 100위권에 들어가는 등 일정 성과를 낸 것에 연예계가 놀란 적이 있다.

신한류의 전파에는 IT 기술의 덕이 크다. 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 소녀들이 '소녀시대'의 춤과 노래를 따라 부르는 영상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다.

'소녀시대'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는 "한국 가수들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유럽까지 알려진 데는 유튜브와 마이스페이스 등 인터넷의 영향력이 컸다"면서 "2008년부터 우리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각종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평론가 이문원씨는 "국내 아이돌을 비롯한 가수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의 세련된 전문 음악을 적극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실력이 상승했다"며 "커다란 트렌드에 휩쓸려 한곳으로만 모든 것이 쏠리는 현상만 지양한다면 신한류의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G

글·서일호 기자

중남미·아프리카에도 한류는 흐른다

일러스트·이철원

문화를 통한 스마트외교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오늘날 한국이 펼치는 해외홍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서강수)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주재관들의 문화외교활동상을 담은 책 〈문화의 날개로 한국을 싣고〉를 최근 출간했다.

'재외주재관의 스마트 홍보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에는 해외문화홍보원의 한국문화원장, 문화홍보관들이 전하는 문화소통의 현장 모습들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생생히 드러난다.

먼저 재외주재관들이 전하는 '한류현상'은 대단하다. 아시아는 이미 전역으로 확산됐고 중남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종률 중남미 한국문화원장은 아르헨티나의 한류붐을 이렇게 전한다.

"비록 한국드라마가 현지에서 한 번도 방송된 적은 없지만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소녀시대, 원더걸스, 샤이니 등 한류 스타에 열광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이 2008년부터 차츰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드라마나 인기배우 중심의 '한류 1세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이돌 가수 중심의 '신한류'로 진입한 특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 2010년 10월 중남미 10개국 92개팀 2백81명이 참가한 K-POP콘서트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다.

한류현상이 한국 상품 구매로 연계되는 사례도 적잖게 눈에 띈다. 김근호 이란 주재 문화홍보관은 이란의 한류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특히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장년층이 '주몽'을 자신의 친구나 먼 친척으로 여기고 있고, 이는 주몽의 나라인 한국의 삼성, LG 등과 같은 한국 전자제품과 현대, 기아 등 한국차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과 LG는 60~70퍼센트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다. 한국 사랑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선호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한류의 매력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대국 프랑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준호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은 프랑스 정부에 영화, 문학, 음악, 공연 등 우리나라 문화 관련 사업 제안을 하면 대부분 성사된다고 한다. 이러한 행사들은 대부분 유료로 진행되는데 연일 매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태권도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하는 공립학교들이 확산되고 있다. 태권도가 미국 공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미국교육에선 찾기 어려운 '인성·참을성·배려심'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셜 네트워크 통해 자발적 마니아층 형성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에서 부는 태권도 열풍도 이와 무관치 않다. 태권도가 한류의 한 축으로 부상한 것이다.

재외주재관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문화예술계 인사, 일반 시민 등 매우 다양하다. 대사관, 한국문화원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뛰며 현지인들에게 다가선다.

국악 청년문화봉사단원들과 함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거리에서 사물놀이, 민요공연을 펼치는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6·25 참전 60주년을 맞아서 참전용사를 위한 자선경매를 소더비사와 함께 펼친 주 영국 한국문화원 등은 '발품'을 팔아 현지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주 영국 한국문화원의 6·25 참전용사를 위한 그림 전시회는 BBC World의 〈임팩트 아시아〉(Impact Asia)를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다.

주 영국 한국문화원은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 20장을 한 세트의 엽서로 제작해 생존 참전용사 4천명 전원에게 일일이 보냈고, 많은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주 영국 한국문화원 주재관들은 그중에서도 '과거의 은혜에 보답하고 이제는 도움을 주는,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기념비적 나라(Your country is a monument to be admired by the rest of the world)'라는 표현을 발견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G

글·서일호 기자

해외 방문 31회… 비행거리 '지구 11바퀴'

'해외순방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 '민생 시찰을 자주 다닌 대통령' '트위터하는 대통령' 등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동안 다양한 기록들을 이어 가고 있다. 2008년 2월 25일 취임 이후 2011년 2월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3년간 기록을 숫자로 되짚어 봤다.

31회 '글로벌코리아'를 위한 이 대통령의 해외 행사 참석 횟수다. 이 중 대통령이 단독으로 참석한 행사는 15회, 대통령 내외가 동반 참석한 경우는 16회다.

이를 위해 총 45개국 61개 지역을 방문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은 8회로 11개국 18개 지역을, 2009년은 13회로 20개국 26개 지역을, 2010년 10회로 14개국 17개 지역을 순방했다.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으로 각각 5차례씩 방문했다.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각각 2회씩으로 기록됐다.

일러스트·이우정

16회 이 대통령은 민심을 살펴보거나 물가점검을 위해 서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를 시찰한 경우가 많았다.

각 지역 전통시장과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창동 유통시장, 양재 하나로마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16회 시장 또는 마트 시찰을 시행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5번, 2009년 5번, 2010년 4번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2차례 방문했다.

132일 이 대통령은 총 1백32일을 해외순방을 위해 해외 또는 기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체류 기간은 109일, 기내 체류 기간은 23일이다. 총 비행시간은 5백56시간 5분으로 23일 4시간 5분이었다. 비행거리를 살펴보면 약 44만1천8백32킬로미터로, 지구 둘레를 4만74킬로미터로 볼 때 지구를 11바퀴 돈 거리와 비슷한 수치다.

130회 이명박 대통령 취임 3년 동안 정상급 방한 횟수는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 시 참가국 정상을 개별 방한으로 합산했을 때 총 130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 캐머런 영국 총리 등이 줄줄이 방한했다. 이외에도 2010년 8월 25일 모랄레스 아이마 볼리비아 국가원수의 방한이나 10월 19일 리카르도 알베르토 마르티넬리 베로칼 파나마 대통령의 방한처럼 '수교 이래 최초 방한'의 의미를 가지는 방한도 있었다.

58회 2008년 10월 13일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2주에 한 번씩 2011년 2월 18일 현재까지 총 58회 라디오 연설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47,000명 이 대통령은 2010년 8월 13일 오후 6시경 청와대의 공식 계정인 'twitter.com/BluehouseKorea'를 통해 "안녕하세요, 대통령입니다"라는 메시지로 '트위터 신고식'을 치렀다. 이로써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하나 더 만든 셈이다.

'이 대통령이 트위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트위터의 팔로워(트위터상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 보는 사람, 구독 수락한 사람)가 급증해 2011년 2월 18일 현재까지 팔로워 수는 4만7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 트위터를 통해 석해균 선장의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조선DB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4진 강감찬함.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파견 임무를 수행했다. 아덴만 여명작전에 참여한 6진 최영함은 지난해 12월부터 임무를 맡고 있다.

세계 평화 수호자로 국제사회에 기여

얼마 전 우리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쾌거가 전해졌다.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가 해적들에게 피랍됐던 삼호주얼리호 선원 모두를 무사히 구출했다는 소식이었다. 청해부대는 최근 3년간 해외에 신규로 파견한 부대 가운데 하나다. 우리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새벽 여명(黎明), 저 멀리 아라비아해의 아덴만에서는 마치 영화 같은 일이 펼쳐졌다.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아덴만에 파견된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와 탑승 선원 전원을 무사히 구출한 것이다.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명명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은 여명 시간에 맞춰 전격 단행됐다. 이날 오전 4시58분경 '아덴만 여명작전'이 시작되자 청해부대 특수요원(UDT) 작전팀은 구축함인 최영함의 위협 함포사격과 링스헬기의 엄호사격하에 삼호주얼리호에 승선, 선교와 기관실, 격실들을 차례로 장악하고 무장한 해적 13명을 단숨에 제압했다.

이번 작전에서 해적 5명이 생포되고 8명이 사망했다. 우리 선원 8명 전원을 비롯한 총 21명의 선원은 모두 구출됐다. UDT 작전팀도 작전 과정에서 전혀 피해가 없었다.

다만 안타깝게도 아덴만 여명작전을 도왔던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57) 선장이 해적들에게 폭행과 총격을 당해 인근에 있던 오만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지난 1월 29일 귀국해 아주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정전감시 외 재건활동 등 임무 확대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은 현재 국내로 압송돼 구속 상태에서 우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해적들의 모국인 소말리아는 우리나라가 첫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을 펼친 나라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유엔의 요청에 따라 내전이 계속되는

소말리아에 건설공병부대 파견을 결정, 1993년 7월부터 1994년 3월까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 상록수 부대를 파견, 한국군 최초의 유엔 PKO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지금 지구촌은 냉전종식 이후 세계 질서 재편과정에서 국경, 인종, 종교, 자원문제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 평화유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분쟁이 악화되어 당사자 간 자체 해결이 곤란한 지역에서 유엔이나 유엔과 동맹관계인 국가들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평화유지 활동은 과거에는 분쟁지역 정전감시가 주된 임무였으나, 최근에는 인도적 지원, 선거지원, 국가 재건활동 지원 등으로 임무가 확대되는 추세다. 참여대상도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 민간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4개국 17개 지역에 1천4백여 명 파병

경제력 신장과 함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해 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구촌 분쟁지역 곳곳에 부대 단위로 유엔이 주도하는 PKO 활동에 참여하거나 옵서버 및 참모장교 요원 등 개인 단위, 혹은 국가 간 국방협력 차원의 활동으로 해외 파병을 확대해 왔다.

국방부 집계에 따르면 1월 18일 현재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라이베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네팔, 서부사하라, 아이티, 코트디부아르 등 14개국 17개 지역에 1천4백19명의 한국군이 파견돼 있다. 17개 지역 가운데 11개 지역이 이명박정부 들어 신규로 파견된 지역이다. 특히 부대 단위는 현재 해외 파견 중인 5개 부대 가운데 4개가 최근 3년 새에 파견된 부대들이다.

삼호주얼리호를 해적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한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됐다. 유엔의 요청도 있었지만, 우리 국적의 선박이 잇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엔은 소말리아 해역의 극심한 해적 활동이 국제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2008년 6월 안보리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에 소말리아 영해 진입 및 필요한 모든 수단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같은 해 10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서한을 통해 우리 정부에 병력과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해군의 전투함으로서 첫 해외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는 해군 대령을 함장으로 4천5백 톤급 신형구축함 1척(링스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탑재)과 3백명가량의 병력으로 편성돼 있다.

2010년 1월 아이티에 강도 7.3의 대지진이 엄습해 23만명가량이 사망하는 재난이 발생하자 우리나라는 같은 해 3월 지진으로 파괴된 아이티의 치안 유지와 재건을 돕기 위해 2백40명 규모의 단비부대를 파견했다.

한국 최초의 구호지역 파병부대라는 임무를 받고 아이티에 급파된 단비부대는 지진 참사 1년을 맞은 요즘도 지원 활동에 여념이 없다. 레오간 지역에 주둔하는 단비부대는 의료활동과 함께 지진 잔해 제거와 우물파기 등의 재건 복구작업을 벌이며 지역민의 호평을 얻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의료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이 지역에서 단비부대가 주둔 9개월 동안 진료한 환자는 약 1만2천명에 달한다.

2010년 6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에는 오쉬노 부대가 파견됐다. 오쉬노 부대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 민간전문가와 군이 합동으로 파견지역 재건 활동에 참여하는 케이스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건팀(PRT)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부대로 구성돼 있다.

2010년 7월부터 활동을 개시한 한국 PRT는 민간전문가 주도하에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은 이러한 민간 주도의 PRT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방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1년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아크부대가 파견됐다. 수년 전 한국을 방문해 특전사 요원들의 교육을 직접 살펴본 UAE 아부다비 왕세자의 특전사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등 군사교류 활동을 하게 된다. 청해부대가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UAE왕실 전용기로 국내에 압송할 당시 호송을 담당한 이들이 아크부대원이었다.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임무를 해외에서도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기록들을 쌓으며 해외에 파견된 우리 군은 파견지에서 국제사회 질서와 우리 국민의 안녕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조선DB

"어때, 맛있지?" 아이티에 파견된 단비부대 장병들이 지난해 추석을 맞아 현지 불우아동 시설을 방문, 아이들과 송편을 나눠먹고 있다.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

“녹색성장 · 에너지수출이 향후 발전 토대”

글로벌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G20 세대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명박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이명박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를 지낸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을 만나보았다. 2001년 유엔총회 의장을 맡기도 했던 한 의장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의 어려움과 극복과정을 돌아보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조선DB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은 우리 국민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다.

“요즘은 주로 인류와 세계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물, 녹색성장 등과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가 가시지 않은 2월 셋째주 유독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만난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면 곧바로 강원도 평창으로 향해야 한다. 한 의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특별고문도 맡고 있는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평창에 와 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국무총리직을 수행한 한 의장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유명한 ‘글로벌 셀레브리티(세계적 저명인사)’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시절인 2001년 유엔총회 의장을 맡았으며 2007년에는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특별대표를 역임했다. 지금도 ‘물과 위생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자문회의(UNSGAB)’와 유엔 관련 ‘물과 재해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위원회(HLEP/UNSGAB)’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GGGI 이사회 의장직은 2010년 6월부터 맡고 있다. GGGI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우리나라 주도로 창설된 첫번째 국제적인 기구다. 한 의장은 각국에서 GGGI에 대한 평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에티오피아, 브라질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에서 GGGI 협력활동을 시작했고 덴마크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협력의사를 밝혀 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재직 당시를 회고하신다면….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세우고 정책화해 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 경제가 전대미문의 침체기로 돌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도 담보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색’은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 성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었고, ‘뉴딜’은 수요창출을 위한 ‘케인지안(시장에 대한 정부 참여를 당연하게 보는)’ 정책, 단기 재정팽창정

책이었습니다. 일종의 '합성정책'인 녹색뉴딜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키워내는 방안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못 해본 시도였습니다. 녹색뉴딜 정책 덕분에 우리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지난 1만 년 동안 세계의 기온 상승은 섭씨 1도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지난 2백 년 동안만 섭씨 0.74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과 같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 금세기 말 섭씨 6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먼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책화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엔, 유엔환경계획(UNEP), OECD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OECD 각료이사회 의장시절인 2009년 6월 OECD 각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녹색성장 결의문'은 그 후 OECD 녹색연구의 기초가 됐습니다. 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을 '녹색성장의 아버지'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시절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꼽아주십시오.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중요한 임무라 생각하고 전국 지자체들을 모두 방문한 일입니다. 16개 광역시군을 몇 번씩 방문한 것은 물론 전국의 1백50여 시·군 기초단체를 모두 방문했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소외지역과 소외계층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던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소록도의 한센환자 마을과 각지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시설, 국무총리로서는 처음 방문했던 독도와 울릉도 등이 기억됩니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유지해 온 양적 성장 패러다임을 과감히 탈피해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성장 패러다임으로 채택하고 정책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수입국에서 에너지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원전수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틀을 닦아 놓은 것이 오래 기억될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2월 25일로 출범 3주년을 맞습니다. 격려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8년 4월 고향 춘천에서 제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돼 국무총리직을 떠날 때까지 20여 년간 여러 부처,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공무원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 공무원같이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중심을 잡고 사기가 충천해 있으면 어떠한 국가적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와 정치 지도력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앞으로 녹색성장과 에너지수출이 이명박정부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한국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되도록 모두가 잘 가꿔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히 발전했고, 국제적 위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인과 경쟁하여 제 역할을 멋지게 해내고, 그것이 세계인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될 때 나라의 위상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국가의 위상은 국민 위상의 총합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은 동북아에서의 위상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일본이, 최근에는 중국이 동북아 맹주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위상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동북아 위상 제고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전망은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안시 그리고 독일의 뮌헨과 겨루고 있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 국위를 선양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는 서너 표 차로 유치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평창이 승전가를 올리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G20 세대 젊은이들 중에는 한 의장님과 같이 글로벌한 길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멘토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글로벌 코리아의 주역이 될 여러분의 활동무대는 세계라는 생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어를 많이 익히고 자유자재로 의사표현이 되는 수준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어 실력은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반적 지식, 즉 세계 역사, 지역 정세, 문학과 철학, 예술 등등 각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소양을 두루 길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많이 읽는 것이 앞으로 국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G

글·박경아 기자

한국의 성공 뒤에는 더 많은 도전 있다

유춘식 로이터 서울지국장 대행

지난해 11월 열린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개최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이 개최한 주주총회에 비할 만큼 순조롭게 치러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직후 라디오 연설에서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국가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당장 정부가 추산한 만큼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한국 국민들로서는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기존 강대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권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현장을 자국에서 목격한다는 흔치 않은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불가사의한 업적이 미래 보장 안해 줘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제 성적표도 성공적이었다. 연간 규모 1조 달러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는 8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고조됐던 2008-2009년 사이에 사라졌던 일자리를 대부분 다시 창출할 수 있었으며 세계 수출 시장에서는 꾸준히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다. 올해에도 지금까지는 과열까지는 아니지만 경제가 순항을 하고 있다.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산업화를 이루어 낸 지 한 세대 만인 1990년대 후반에 맞이한 국가부도 사태를 신속히 극복함으로써 눈길을 끈 바 있는 한국민들에게 2010년은 그야말로 뜻깊은 한 해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미 한국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불가사의한 업적을 이루어 냈다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우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효율적인 국내 정치 문화는 국가적 도전 극복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발할 경우 그 영향으로 한국 경제는 수십 년은 몰라도 상당 기간 과거로 후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출발해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성공 사례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은 일본이 빠른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지 못한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

북한 대처능력 국제 투자자들에게 납득시켜야

단 한 세대 만에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부상한 일본이 몇 년 안에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감소 추세에 들어선 인구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연이어 실패함으로써 일본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하는 꿈이 무산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중국에 2위 자리마저 내주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미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생률로 인해 곧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의 젊은 한국인들은 앞으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해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여력은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및 선박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부상했지만 이들은 수년내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기업들로부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내 서비스업 부문은 생산성 면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져 있으며 각종 보호정책을 폐지하고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야심찬 계획들은 기존 업계의 강력한 저항과 정치권의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냈다. 세계는 한국이 앞으로 다가오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원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 근로자들은 똑같은 양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선진국들보다 더 오랜 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끝으로 세계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정권인 북한이 바로 이웃에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오랫 동안 이 점을 한국 신용등급 제약 요인으로 꼽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가 조만간 전면전에 휩싸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한반도의 긴장은 전후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정부는 최소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현재의 상황을 관리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아시아 최대 시장의 하나인 서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3분의 1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한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한국이 이 같은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은 결국 한국이 그들이 추구하는 수익을 창출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G

Latest success behind, South Korea faces yet more challenges

It was the biggest global event in history that South Korea has ever hosted on its own soil but went on almost as smoothly as a shareholders' meeting at an established company. President Lee Myung-bak rightly emphasized in a radio address right afterward that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G20 summit last November has set the stage for the country to become a leading and top-notch country.

Hosting leaders from a dozen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economies itself may not have added as much financial value to the economy as Lee's government once calculated, but South Koreans had a rare opportunity to eyewitness a historic shift in world power toward emerging economies to which they themselves belong from the few rich nations.

Economic score cards also look strong for that very year -- the nearly $1 trillion economy expanded by the fastest clip in eight years, recovering most if not all the jobs lost during the 2008-2009 p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boosting the country's share in global export markets. The economy continues on a smooth sailing so far this year, if not on an overheating stage.

It was indeed a remarkable year for South Koreans already credited for quickly overcoming its own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late 1990s that had put the country effectively in insolvency a generation after achieving one of the fastest industrialisation in modern world history from the ashes of a war. But time never waits.

Many more challenges lie ahead for South Korea, and it does not much matter whether or not its achievement so far was miraculous: to name a few, the quickly aging population means it will be much harder to keep the economy expanding; the inefficient domestic political system may fall short of providing sufficient support for dealing with challenges; and a potential instability in North Korea may cause problems eventually taking the South Korean economy years if not decades backward.

Just as Japan was a good example to follow in its economic rise from the debris of the 1950-1953 war, South Korea has much to learn from where the giant but aging neighbour has failed. Japan's astonishing rise to the world's second position in a generation once made it look like a matter of years before it takes over the then old United States. But one policy mistake after another in the face of a shrinking population has not only disrupted its rise to the world's top post but allowed China to take its existing post.

South Korea's population is growing old very quickly and looks set to begin shrinking soon as it has one of the lowest birth rates among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 states. South Korean teenagers today will have to spare an ever increasing proportion of their income in the future to support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elderly, finding less to spend on keeping the economy growing.

The country is home to leading global players in sectors ranging from computer chips and ships to cars and electronic gadgets, but it could be a matter of years rather than decades when their dominance in existing markets will face serious challenges from fast-growing brand names from China and India. Its domestic service sector lags far behind that in the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productivity as the ambitious plans by the government to remove more of the protective measures and introduce more competition continue to fail in the face of strong resistance from the existing companies and a lack of sufficient support from the domestic political community. South Koreans are working for far more hours than those in the advanced countries to achieve the same unit of output.

The risk from living next door to the world's most unpredictable regime in North Korea can never be overstated - and it has been the main drag on South Korea's credit ratings throughout its history. Tensions are now at one of their highest levels since the war, although experts play down the chances of an immediate escalation into a second war. Th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needs to at least assure investors from around the world that his country has the ability to manage the situation and prepare for the worst.

Foreign investors own one third of the South Korean stocks traded on the main board, one of the largest in the region, and are boosting their holdings in the country's government bonds. The whole world is watching how South Korea will deal with these challenges - and many of the global investors seem to bet the people of South Korea will deliver the rewards they are looking for.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전 팝페라 테너 임형주

“돈이 아닌 재능 기부하며 살고 싶어요”

팝페라 테너 임형주씨는 대표적인 ‘G20세대’다. 글로벌 감각, 도전정신, 봉사정신 등을 두루 지닌 임씨는 최근 한국인 최초, 세계 최연소로 UN ‘평화메달’을 받았다. UN 평화메달은 세계평화와 인권신장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조선DB

임형주씨는 “넓은 세상에 나가봐야 꿈의 크기도 커진다”고 말했다.

“G20세대의 핵심은 ‘글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세상에 나가봐야 꿈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세계무대에 진출해서 꿈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7일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연소로 UN이 수여하는 ‘평화메달’을 받아 화제가 된 팝페라 테너 임형주(25)씨는 대표적인 G20세대다.

UN 평화메달은 세계평화와 인권신장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자메이카 출신의 세계적 레게 뮤지션 밥 말리, ‘아프리카의 어머니’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포크 싱어 미리암 마케바 등이 받은 바 있다.

“감개무량하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UN에서 상을 받는 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게 ‘아름다운 족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화메달 수상자로 소개될 텐데, 행동거지 하나에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최초, 세계 최연소로 UN ‘평화메달’ 받아

임씨는 지난해 12월 5일 카네기홀 잔켈홀에서 연 ‘6·25한국전쟁 60주년 기념공연’ 수익금 2만 달러(약 2천3백만원)를 17개국의 6·25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들 장학사업을 위해 UN본부에 기부한 것도 평화메달 수상에 밑바탕이 됐다고 했다.

“6·25를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UN참전군인들의 헌신으로 제가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고마움과 원조를 받던 나라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국이 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공연에 참석한 참전군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G20 정상회의 경축음악회: 2010 임형주 송년콘서트–미러클 히스토리’를 개최했으며, 세계 데뷔 7주년 기념앨범 ‘미러클 히스토리’도 냈다.

“대한민국의 작은 소년이 세계무대에 선 후에 세계 곳곳에서 특별한 공연을 가졌고 국경을 초월해 많은 사랑을 받은 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공연 제목과 앨범 제목을 ‘미러클’이라고 지었습니다.”

앨범의 타이틀 곡은 배트 미들러의 명곡 ‘윈드 비니스 마이 윙스’

로 영화 〈두 여인〉에 OST로 삽입돼 인기를 누렸다.

“이 노래는 ‘새가 나는 건 바람이 받쳐주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잘되는 게 제 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날 수 있는 건 절 바람처럼 받쳐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팬들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꼈고 이를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1998년 국내에서 데뷔한 임씨는 2003년 카네기홀 독창회를 시작으로 세계무대에 나섰다.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팝페라 테너로 성장했다.

“가슴에 태극기는 달지 않았지만 항상 문화예술계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해외무대에 섭니다. 음악을 포함한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근간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갈등과 충돌이 없어지고 세계평화에 한 걸음 다가갈 테니, 저는 음악으로 일조하고 싶습니다.”

조선DB

임형주씨가 지난 12월 7일 UN본부 무관단 쥬세페 코코 대표로부터 UN ‘평화메달’을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다.

“2010년 6월에는 급성후두염으로 갑자기 ‘아’ 소리도 못 낼 지경이 돼서 급작스럽게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경험을 했죠. 어릴 때 저의 재능이 신이 내린 선물이고 그게 영원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젠 ‘간이역’처럼 저한테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브랜드로”… ‘임형주’ 고집

임씨는 올해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오는 3월 미국 유명 음반사 아이에이엠지(IAMG)의 클래식 레이블인 아이에이엠지 클래식스와 앨범을 낸다.

“제 미국 첫 정규앨범을 냅니다. 미국에 가보니 제 음반이 한국에서 수입돼 팔리는 거라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 발매를 하면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팬과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기회죠. 한국 국적 최초로 빌보드 클래식 차트와 크로스오버 차트 1위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임씨는 10월에는 한국 프랑스 수교 125주년 기념 음악회(파리), 11월에는 빈 모차르트오케스트라와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협연(빈) 등 전 세계를 누빌 굵직한 공연 일정도 세웠다.

“아직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이미자 선생님과도 공연해 보고 싶습니다. 장르는 다르지만 항상 이미자 선생님을 국보급 가수라 생각해 왔어요.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임형주’라는 한글 이름을 고집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했지만 임씨는 그냥 ‘임형주’가 좋다고 한다.

“‘형주 임’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데뷔 초기에는 외국 매니저들이 제 이름을 발음하는 게 어렵다고 ‘필립 림’이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형주’라는 이름 자체를 브랜드화시키고 싶습니다. ‘돌체 앤 가바나’ 이런 건 어려워도 사람들이 그냥 외우잖아요. 브랜드니까요.”

임씨는 동갑내기에 비해 어릴 적에 진로를 명확하게 정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중학교가 아닌 예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같은 전공의 음악가와 비교하더라도 10년 정도 빨리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12세에 성악가로 국내무대에 데뷔했고 17세에는 세계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음악가의 진출이 활발하지만 제가 데뷔할 당시 음악계 풍토에서는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인으로서의 꿈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언젠가 은퇴할 즈음에는 문화예술 사업가라는 공식 직함으로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아트원 문화재단 설립, 코리안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등은 모두 또 다른 인생에 대한 꿈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드리 햅번처럼 평생 봉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단순히 돈으로 하는 기부가 아니라 교육, 공연 등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G

글·서일호 기자

한국 생활 16년째… TV 출연·강연으로 유명한 이자스민 씨

"다문화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거죠"

이자스민 씨는 15년 전 한국에 처음 왔다. 결혼과 함께 조국인 필리핀을 떠났다. 그 사이 아이 둘을 가진 어머니가 됐고 공중파 TV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유명인사가 됐다. 이주여성들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그의 한국 생활, 한국 생각을 들었다.

이자스민 씨는 다문화사회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스민 씨가 딸 승연, 아들 승근이와 함께 다정하게 포즈를 취했다.

이자스민 씨는 유명인사다. 방송을 많이 해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적잖다. 그는 현재 EBS에서 한국어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 KBS <러브 인 아시아>의 고정패널로 출연 중이다. 강연 일정도 빡빡하게 잡혀 있다. G20 관련 강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봉사활동도 한다. '물방울나눔회'라는 이주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10대인 아들과 딸은 엄마 보는 게 어려워졌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이자스민 씨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미안하다"며 "그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부지게 말했다.

'다문화'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다문화란 단어가 처음 생겼을 때는 좋았어요. 이 사회에서도 이주외국인이란 존재가 인정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지만 요즘엔 '다문화'란 단어가 취지대로 쓰이지 않고 있어요. '언제 말썽부릴지 모르는 이주노동자' 아니면 '돈에 눈이 멀어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 처녀'같이 어두운 이미지부터 떠올려요.

이주외국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약자'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주외국인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지죠. 게다가 한국인들은 이주외국인을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주외국인들을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문화'가 한국사회가 떠안고 가야 할 하나의 짐처럼 보이기도 하죠.

다문화가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문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거죠.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다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의무감이 오히려 다문화 과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란 말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문화 행사'에 참가했어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캠프라고 했죠. 그런데 처음에 버스를 탈 때부터 스태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반 가정은 이쪽에 타고, 다문화 가정은 저쪽 버스에 타세요!"

한국인들은 나누고 구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다문화 사회는 차별 없이 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한국은 다문화의 개념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죠.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씨는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다문화를 알리고 있다. KBS <러브 인 아시아>의 고정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자스민 씨.

이자스민 씨는 자신과 같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필리핀과 한국의 가장 큰 문화적 차이는 뭔가요?

당연히 '빨리빨리'죠. 한국 사람들은 추진력이 강하고 근면 성실하죠. 그것이 한국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 사람들을 스트레스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로 위염에 걸린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반면 필리핀 사람들은 날씨 때문인지 굉장히 낙천적이고 여유로워요. 아마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했으면 너무 더워서 탈진으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웃음) 한국에서는 여유 부리는 것이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겐 일상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은 삶 자체를 즐겨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러다 보니 긍정적이라 쉽게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아요. 한국보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문화 차이 때문인지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일반 가정보다 높습니다.

문화 차이 때문에 처음에 부부 갈등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살아온 방식이 워낙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에 결혼이주를 오기 전에 하루에 여덟 시간씩 이틀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국인 아내를 맞는 남편을 위한 문화교육이 단 네 시간뿐이더라고요. 그마저도 내실이 부족해요. 제가 통역을 위해서 교육장에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주무시더라고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좀 더 현실적이고 재미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그지만 한국에서 16년이 늘 행복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해엔 큰 슬픔이 있었다. 남편을 잃은 것이다. 물에 빠진 딸 아이를 구하다 숨졌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한국을 떠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국에 더욱 깊게 뿌리내리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최근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만도 한데 한국에 계속 남기로 결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16년 됐어요. 인생의 반을 한국에서 보냈죠. 남편과 저는 줄곧 한국에서 함께 꿈을 꿔왔어요. 남편이 떠나면서 한국에 온 이유가 사라졌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남을 이유가 됐어요. 남편의 빈소에 정말 많은 분께서 오셨더군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걸 보고 우리 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조금은 다른 의미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의 다문화 활동을 항상 뒤에서 도와줬어요. 저와 제 가족이 다문화 가정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슬럼프는 어떻게 이겨내세요?

남편이 항상 그랬어요. '당신이 못하면 아무도 못해'라고요. 발인하는 날 열다섯 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까지만 울자.'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리고 많은 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어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낙천적인 필리핀 사람이잖아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제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른 이주여성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천 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저 자체가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올해 계획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못했어요. 원래는 남편과 함께 세운 계획이 있었는데 우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로 했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 계획은 일단 미루고 지금 제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G

글과 사진 · 정하늘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펴낸 오윤희 전 고려대장경연구소장

"고려대장경은 宋나라 것 베낀 '짝퉁' 하지만 원본보다 더 뛰어나니 훌륭"

오윤희 전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이 최근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을 펴냈다. 그는 '고려대장경은 짝퉁'이라는 파격 선언을 했는데, 이는 대장경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씻어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김승완 기자

20년 이상 고려대장경을 연구한 오윤희씨. 그는 "고려의 초조대장경은 송나라의 개보대장경을 베낀 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고려는 송의 대장경을 계승해 더 진화시켰다"고 말했다.

"올해로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이 1천살이 됐다. 이젠 고려대장경을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오윤희(53·전 고려대장경연구소장)씨를 만났다. 20년 넘게 대장경을 껴안고 고군분투했던 그가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불광출판사)을 냈다. 그는 책에서 "고려대장경은 짝퉁이다"라는 파격 선언을 했다. 무슨 말일까.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왜 짝퉁인가.

"고려대장경은 세 종류가 있다. 1011년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을, 1094년쯤 고려속장경을 조성했으나 몽골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버렸다. 그래서 1236년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다.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는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일명 팔만대장경)이다. '짝퉁'이란 과격한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 대장경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씻어 내려고 했다."

어떤 오해가 있나.

"우리는 고려대장경에 대해 과도하게 포장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걸 걷어내야 고려대장경의 현대적 의미를 더 깊고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다.

대장경은 중국 송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다. 개보대장경(開寶大藏經·971~982)이다. 고려 초조대장경은 그걸 글씨체까지 베낀 것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도 초조대장경을 베낀 것이다. 글씨체도 중국의 글씨체다. 역사적 사실이다."

고려대장경이 중국 대장경의 복사품에 불과한 건가.

"그렇진 않다.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다. 그럴 때 고려대장경의 실질적 가치를 알게 된다. 베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다. 그걸 바탕으로 더 진화시켰다. 대장경은 고려만 만든 게 아니다.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일본 등 모든

왕조가 대장경을 새겼다. 우리가 오랑캐라고 불렀던 나라에도 대장경이 있었다. 그런데 송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목판 대장경을 만든 게 고려였다. 대단한 사건이다."

왜 대단한가.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과 태플릿PC는 뛰어나다. 그런데 삼성이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든 것은 아니다. 대장경도 그런 식이었다. 송나라에서 먼저 만들었다. 고려는 이를 계승·발전시켜 더 진화된 물건을 만들어냈다. 송의 대장경을 베낀 것은 오히려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고려의 대장경은 송의 대장경보다 오류도 적고, 교정과 구성이 매우 뛰어나다. 요즘 말로 디자인 파워와 편집 파워가 있었던 거다. 고려의 문화적 저력이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송나라 대장경을 보면 어려운 한문이 띄어쓰기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 고려대장경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모양을 조금씩 바꾸었다. 내용을 베끼면서도 목차를 집어넣고, 목차를 한단 내려서 편집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고려대장경은 보기에 훨씬 시원시원하다. 또 하나의 창조였다."

단순한 편집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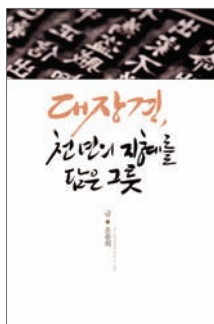
"송나라 대장경은 한 권당 5백~1천자씩 틀린 게 있다. 고려대장경의 오류는 이보다 훨씬 적다. 비판적 시각에서 편집을 했던 거다. 저명 불교학자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는 '인류사에서 일찍이 없던 기술이다. 르네상스기 사상가였던 에라스무스는 이걸 '크리티컬 에디팅(Critical editing·비판적 편집)'이라고 불렀다.

고려대장경의 크리티컬 에디팅은 서구보다 2백 년이나 앞섰다'고 말했다. 한국이 하루아침에 IT강국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려대장경을 만든 그런 지적인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흐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고려대장경의 분량은.

"대장경 목판을 모두 인쇄하면 두루마리 책으로 6천 권 규모였다. 속장경은 1만2천 권 규모였으리라 추정한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6천7백98권이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앞다투어 대장경을 만든 까닭은.

"대장경은 국력의 상징이었다. 중국도 왕조가 바뀔 때마다 대장경을 새롭게 만들었다. 불교 경전이 집성되고 전래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불교 경전은 최고의 선진문명이었다. 각국은 이것을

장악하려 했다. 대장경은 당시 가장 첨예한 선진문명의 헤게모니, 즉 주도권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다."

거란·몽골의 외침을 물리치기 위해 고려대장경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

"그건 부분만 보는 거다. 이젠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

대장경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만든 게 아니다. 동아시아 각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든 거다. 아시아의 지식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려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봐야 한다. 글로벌한 흐름 속에서 대장경을 보는 거다. 불교는 어차피 글로벌 문화다."

인도에서 동아시아로 불교 경전이 전해졌던 경로를 여행했다고 들었다. 어땠나.

"2005년에 보름간 인도에서 중국으로 옛 사람들이 갔던 루트를 여행했다. 대승불교가 일어났던 북인도에서 출발해 간다라 지역, 인도문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통로였던 파미르 고원을 봤다. 그걸 넘으면 중국 땅이었다. 당시 인도로 경전을 가지러 갔던 사람들은 '별을 보고 눈을 밟으며' 갔다고 기록돼 있다. 그 말이 실감나더라. 사막에서 길을 찾으려면 별에 의지해야 한다. 방향을 알려면 별밖에 없다. 또 어마어마한 설산도 넘어야 했다. 다큐멘터리 '차마고도'에서 봤던 길, 절벽에 난 좁다란 길을 가며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거다. 법을 얻기 위해 그렇게 길을 떠났던 거다."

결국 대장경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기억이다. 2천5백년 전 부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을 담은 그릇이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시자(侍者)였던 아난의 암송력이었다가, 문자를 기록한 나뭇잎이었다가, 종이였다가, 다시 목판으로 인쇄됐던 거다. 말씀은 그대로지만 담는 그릇은 계속 바뀌었다. 고려대장경 이후 다시 1천년이 흘렀다. 지금 시대도 새로운 그릇을 필요로 한다. 바로 디지털이다. 2006년 '디지털 대장경(http://kb.sutra.re.kr)'을 만든 이유다." G

글·백성호 (중앙일보 문화스포츠 부문 기자)

고려대장경

거란의 침략을 받아 고려 현종 2년(1011)에 새기기 시작한 목판 대장경이다. 모두 1천5백 종의 문헌, 5천2백만 자가 수록돼 있다. 두루마리 책에 인쇄하면 6천 권 분량이다. 이후 고려속장경(1094년쯤)도 만들었다. 그러나 외침으로 둘 다 불타버렸다. 현재 목판은 없고, 종이에 인쇄된 일부만 일본 교토의 남선사 등에 소장돼 있다. 이후 몽골의 침략에 맞서 재조대장경(1236~51)을 조성했다. 그게 경남 합천 해인사에 소장돼 있는 6천7백98권 규모의 팔만대장경이다.

〈항공정책론〉 공동 집필한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직원들

"40명이 한마음으로 띄웠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여객 숫자가 6천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운송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항공업계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월 말,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직원 40명이 단행본 〈항공정책론〉을 펴낸 것이다. 항공 관련 국제기구·법·제도·정책·일반 상식과 우리나라의 항공 전반, 항공정책의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한 종합개론서인 이 책은 1년 가까이 직원들이 함께 흘린 땀의 결실이었다.

김승원 기자

〈항공정책론〉을 기획한 박종흠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관(사진 오른쪽 끝), 황성규 항공정책과장(사진 왼쪽 끝)과 책 작업에 함께 참여한 항공정책실 직원들.

"40명이 참여했기에 개개인이 쓴 분량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모여서 두꺼운 책이 되니 굉장히 가슴이 뿌듯했죠. 책을 받아 든 순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난해 3월, 정일영 전 항공정책실장(현 교통정책실장)을 비롯 항공정책실 직원 40명은 '직무 외 분야'에서 의기투합했다. 항공 전반에 관한 전문개론서를 출간하는 일이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짧아 전문성을 기르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항공정책실의 항공직 공무원들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중요하다 보니 보통 한 분야에서 7, 8년 이상씩 근무해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종합 전문서적 발간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다. 우선 기존 자료만으로는 우리나라 항공에 대한 윤곽을 잡는 것도 벅찼기 때문이다. 이번 〈항공정책론〉 출간을 기획한 박종흠 항공정책관은 그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야간이나 주말 이용 수개월씩 집필 매달려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참고서적도 부족한 실정에 그마저도 영문으로 된 어려운 책이거나 특정 전문 분야만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20년 전에 집필된 〈현대한국수송론(1991)〉 이외에는 이렇다 할 개론서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항공 전반에 관해 다루는 새로운 책이 나온다면 항공관련업계 종사자나 학생, 우리 직원들에

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책은 올 1월에 나왔지만, 원고는 지난해 10월 마감했다. 맡은 분야에 따라 원고 작성에 들인 시간은 달랐지만 항공정책실 직원들은 각자 근무가 끝난 야간이나 주말에 수개월씩 글을 썼다.

공동저자 40명 중에는 '숨은 항공 인재'들이 적지 않았다. 항공기 조종 경험이 있는 조종사, 정비사, 엔지니어 등 민간 항공사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관제사, 항공 국제협상 전문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근무자 등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인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래도 바쁜 업무 시간 외 개인 시간을 쪼개어 책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과외 일로 했기 때문에 더 힘든 측면이 있었죠. 처음에 의견을 모으고, 기본 틀을 짜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챕터를 나누고 자신이 맡을 분야를 정한 다음 원고를 작성하고 막상 책으로 내려고 하니 마지막으로는 출판사 섭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세는 전액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 예정

공들여 쓴 책이었지만 찾아가는 출판사마다 머리를 내저었다. 6백 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독자층이 한정돼 있어 '돈이 안된다'는 이유였다. 이곳저곳 문을 두드리다 겨우 한 출판사가 관심을 보여 어렵사리 책을 낼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은 '하늘에 떠다니는 것'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항공기의 이륙에서 착륙까지, 그리고 항공운송산업, 국제항공노선 배분, 항공사 인허가, 운항감독, 항공관제, 항공기 정비, 공항건설 및 운영, 항행시설 운영 등 항공 관련 지도감독, 규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덕에 항공정책실 직원들이 대거 참여해 펴낸 〈항공정책론〉은 항공의 기본서로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 사항을 폭넓게 담을 수 있었다.

항공기, 항공자격론, 항공운송론 등 각 분야를 기초에서부터 전문지식까지 광범위하게 설명하다 보니 분량도 총 11개 챕터, 6백44 페이지에 이른다. 각종 그림 자료, 도표, 사진과 함께 재미있는 토막상식 등도 넣어 다채롭게 구성했다. 항공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배려다.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조차 접하기 힘든 전문적인 내용도 다수 수록됐다. 항공협상이나 항공협정, 항공관제에 관한 정부자료 등은 다른 항공 관련 책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책이 출간된 지 한 달 가량, 벌써 책 구입에 관한 문의전화가 항공정책실로 많이 걸려온다고 한다. 대개 항공분야 종사자나 전문가, 전공자들의 전화였는데, 〈항공정책론〉이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이다.

3만원이 조금 넘는 책의 가격. 40명이 나눈다면 한 사람 앞에 돌

조선DB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항공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서적도 나오게 된 것이다.

아가는 몫이 얼마 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항공 관련 종사자들만 모두 구입해도 인세가 짭짤하지 않을까? 하지만 책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박 항공정책관은 "저술 작업에 착수할 때부터 이미 자선단체에 기부할 목적으로 시작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정판이 출간될수록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어 뿌듯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새 종이 냄새가 산뜻한 〈항공정책론〉을 받아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야간과 주말 시간을 쪼개 원고를 쓰면서 힘들었던 기억, 하지만 '전문서적을 저술할 수 있는 전문분야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상이었다.

항공정책실 직원들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된 책도 구상 중이다.

"개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자를 압축해 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책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항공협상, 항공안전, 공항 개발이라든지 전문분야로 파고드는 것도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항공분야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공감을 이뤘습니다."

박 항공정책관은 올해 말쯤 책 판매대금으로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성규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장은 "이번 〈항공정책론〉의 발간은 항공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보다 친근하게 항공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분야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아래 추진했다"며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아졌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국립현대무용단의 창단공연 '블랙박스'. 사진은 8편 중 하나인 '벽오금학'의 한 장면.

예매로 전석 매진된 국립발레단의 '지젤'. 1962년 창단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쉿! 공연계가 수군댄다 "철밥통이 변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 예술단체들의 경쟁체제 도입을 선언한 지 3년 만에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국립발레단의 정기공연이 잇따라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공정함이 적용된 것이다. 조선일보(2월10일자 2면), 서울신문(2월16일자 22면), 동아일보(2월17일자 27면), 연합뉴스(1월19일) 등에서도 문화부 국립 예술단체들의 경쟁체제 도입 성공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짬밥순 캐스팅 퇴출… 법인화로 체질개선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극단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일부 단원들의 반발 등 진통도 따랐지만 법인 전환 이후 두 단체는 맨 먼저 '철밥통 단원제'를 수술했다.

재창단한 국립현대무용단은 오디션을 거쳐 단원(비상근)을 새로 뽑았다. 국립극단도 백성희·장민호 두 원로배우만 빼고 기존 단원을 모두 내보냈다.

종전에는 전속 형태이다 보니 공연에 관계없이 꼬박꼬박 월급이 나왔고, 쫓겨날 염려도 없었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초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던 정단원 23명의 평균연령이 53.2세일 정도로 극단은 고령화돼 있었다.

일부 배역도 '짬밥'에 따라 주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공연 때마다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배역도, 수입도 기대할 수 없다.

재미있는 공연… '밋밋' 고정관념 타파

그렇게 해서 뽑힌 짱짱한 출연진은 극의 재미로 이어졌다. 이변의 신호탄은 국립현대무용단이 쐈다. 지난 1월 29~30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린 창단공연 '블랙박스'가 무용, 그것도 현대무용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추가 공연까지 완전 매진된 것이다.

현대무용은 난해하다는 편견을 깨고 이미 검증된 8개의 작품을 갈라쇼처럼 재미있게 엮은 것이 주효했다.

국립극단의 법인 전환 뒤 첫 작품 '오이디스푸스'(1월 20일~2월 13일) 역시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묵직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표가 동났다. 국립극단 공연이 매진되기는 2001년 인기스타 김석훈 주연의 '햄릿' 이후 10년 만이다.

착한 가격… 전 좌석 균일가·발상 전환

법인 후발 주자인 '연극'과 '현대무용'의 선전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발레'였다. 10년 전 일찌감치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국립발레단은 발상의 전환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고전발레의 정수 '지젤'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 버전을 선택한 것이다.

파리 버전이 국내 무대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그 결과 공연(2월 24~27일)도 전에 전회 전석 매진 기록을 세웠다. 1962년 창단 이래 약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가격도 거품을 뺐다.

추가 판매에 들어간 좌석은 시야 확보가 덜 되는 단점을 감안해

국립극단의 법인 전환 후 첫 작품인 오이디푸스 연출자 한태숙씨.

5천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국립현대무용단은 좌석 구분 없이 모든 자리를 1만원에 판매하는 파격 시도를 감행했다. 국립극단도 전 좌석 1만원 균일가의 사전 공연(프리뷰)을 가졌다.

단체 간 경쟁… 홍보비 증액·공격 마케팅

국립극장 관계자는 "국립극장 산하에 있다가 법인 등으로 독립하다 보니 단체 간 경쟁심리도 작용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실제 국립극단은 홍보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국립극장 시절 편당 1천만원 쓰던 홍보비를 '오이디푸스' 때는 3~4배 더 썼다는 후문이다. 공연 시작 전부터 서울 대학로·명동·압구정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빨간색 '오이디푸스' 홍보 깃발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실력파 예술 감독들 영입

국립 단체들은 단원뿐 아니라 '머리'도 바꿨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극단은 초대 예술감독으로 홍승엽과 손진책을 각각 영입했다.

모두 공연판에서는 알아주는 실력파들이다. 30년 이끌어 온 극단 '미추'를 아내(김성녀)에게 맡기고 국립극단에 합류한 손 감독은 신고작에 한태숙(연출가), 박정자·서이숙·이상직(주연배우) 등 이름값 하는 스타들을 끌어들였다.

연임에 성공한 최태지 국립발레단장은 파리오페라발레단 수석무용수를 '지젤' 남녀 주역에 특별 출연시키는 저력을 발휘했다.

법인화 이후 국립극단의 첫 작품 연출을 맡은 한태숙 연출가는 국립극단의 고루한 한국적 공연을 깨는 변화를 시도했다. 묵직한 희랍비극과 현대적 재해석 사이를 왕래하며 세련된 연극 무대를 선사했고, 중극장 무대에서 미학을 완성해 호평을 받았다.

체질개선 성공… 문화부의 개혁 성과

국립극단, 국립현대무용단 등의 성공 이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큰 역할을 했다. 작년 8월 국립극단 법인화 발족을 앞두고 많은 공공 예술기관 단체들은 법인화를 하면 상업성만 추구하게 돼 예술적 품격을 훼손하게 된다며 법인화에 반대했다.

연극계 원로 24명도 성명을 내 법인화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문화부는 침체된 국립극단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체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어 운영 체계와 주요 사업 등 재단법인 국립극단 설립 계획안을 알렸다. 연극계 반발이 거셌지만 설득 과정을 통해 진통을 이겨냈다.

문화부는 국립극단 체질개선을 통해 한번 국립극단 단원이 되면 평생 일자리가 보장되던 '닫힌' 시스템을 바꿨고, 모든 연극인이 참여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을 만들었다. 예산도 늘렸다. 재단법인 전환 이후 연간 35억원이었던 예산을 50여억원까지 늘렸다.

국립극단 운영취지가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국립극단이 재정조달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작품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결국 국립극단의 체질개선 및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첫 작품 '오이디푸스'는 성공작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지난 7월 공연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현대무용단을 재단법인 형식으로 전환시킨 것 또한 문화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재창단 이후 창단공연, 정기공연 등의 과정에서 공개경쟁 오디션을 통해 작품별로 무용수를 뽑고 있다. 경쟁력이 구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화부는 이외에도 국립현대무용단을 통해 현대무용 아카데미 운영, 세계 무용계와의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나친 경쟁·상업논리 경계 지적도

우려도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국립단체에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나친 경쟁구도 유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너무 상업적으로 흐를 경우 예술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고 (작품의) 예술적 품격도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진 거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일정 분량 표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G

글·김정은 (서울신문 문화부 기자)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공신력 가진 통합차트"

한국판 빌보드 '가온차트' 알고 계시죠?

가온차트는 기존에 음반 판매량만을 집계 발표했던 차트나 자사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매출데이터를 집계한 차트의 한계를 벗어난 최초의 통합 차트다. 2010년 집계에 따르면 음반판매 1위는 슈퍼주니어(미인아), 온라인 부문 1위는 미쓰에이(Bad Girl Good Girl), 모바일 부문 1위는 이승철(그 사람)로 나타났다.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온차트 '2010년 결산 시상식 및 2011년 비전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음반판매부문 1위를 차지한 그룹 슈퍼주니어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트로피를 받고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가온차트 2010년 결산 시상식 및 2011년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인기차트 수상자들과 함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방극균 회장, 네오위즈 이기원 대표, 소니뮤직 정규호 대표,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 유니버설뮤직 노재승 이사, KT뮤직 김민욱 대표, 큐브엔터테인먼트 노현태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방극균 회장은 "가온차트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민 지 1년이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뉴미디어 환경에 발맞추고 한류열풍을 지속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1년 동안의 시행착오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음악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다운로드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음악 공인차트를 표방하는 가온차트(Gaon Chart)의 2010년 집계에 따르면 음반판매 1위는 슈퍼주니어(미인아), 온라인 부문 1위는 미쓰에이(Bad Girl Good Girl), 모바일 부문 1위는 이승철(그 사람)로 나타났다. 온라인 부문 신인 가수상의 경우 남자는 강승윤, 여자는 지나가 선정됐다.

음반판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특은 "한국 가요는 이제 국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면서 "한류 확장에 더욱 힘쓰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신인 가수상을 받은 강승윤(남자 부문)은 "부족한 저에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훗날에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가온차트에서 '가온'은 '가운데' '중심'을 뜻하는 순우리말이고, 국내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인된 대중음악차트가 필요하다는 가요계와 음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운영, 관리한다.

2010년 시상식 및 2011년 비전 선포식 가져

가온차트는 국내 6개 주요 음악서비스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음악서비스의 온라인 매출데이터, 국내 주요 음반유통사·해외 직배사의 음반 판매량 데이터를 모아 디지털종합차트, 온라인, 모바일, 앨범차트 등 부문별 순위를 주간 단위로 집계해서 발표한다.

가온차트는 기존 음반 판매량만을 집계 발표했던 한터차트나 자사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매출데이터를 집계한 멜론, 엠넷, 벅스, 도시락 차트 등의 한계를 벗어난 최초의 통합 차트로서 공신력 있는 종합 차트로서의 권위를 확보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리랑TV 음악프로그램 '더 엠 웨이브'와 KBS 월드 라디오가 가온차트를 사용하고 있다. '더 엠 웨이브'는 전 세계 188개국으로 송출되고 있는 K-Pop 차트 프로그램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 도쿄뉴스 통신사가 창간한 한류잡지 'haru*hana'(월간 5만 부)에 차트를 제공했고 일본 후지TV의 음악방송 프로그램에도 차트를 공급했다.

이날 2010년 결산 보고에서는 음악산업의 핫이슈들도 언급됐다. 첫번째는 '짧아진 음악콘텐츠 생명 주기'였다. 이는 음악콘텐츠 시장이 오프라인 음반시장에서 온라인 음원시장으로 대체되면서, 음반처럼 묶음상품 소비 패턴에서 디지털 단곡구매(음원) 패턴으로 유통의 패러다임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디지털 싱글 중심의 시장 전환으로 음반발매 주기가 정규앨범 시장에 비해 매우 잦아졌고, 잦은 앨범 발매로 인한 가수 생명 단축 및 앨범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음악콘텐츠의 홍보기간도 짧아졌다. 음반발매가 대세이던 시절 6개월 이상 방송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길면 한 달, 짧으면 2주 정도에 그치는 홍보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슈퍼주니어·미쓰에이·이승철·강승윤·지나 부문별 1위

두번째는 '음악 판매수익 분배구조 논란'이다. 현재의 음악산업 위기는 단순히 사업자와 창작자 간의 수익 분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음원가격과 음원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법음원 유통시장 때문이다.

세번째는 '오프라인 음반판매 소비의 획일화'이다. 오프라인 음원시장은 2007년을 기점으로 8백억원대로 보합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나 아이돌 가수 음반 소비로만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이돌 가수 음반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면서 음반소비 성향도 아이돌 팬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주간 빠르게 판매되고, 이후에는 급격하게 판매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결산보고와 함께 2011년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올해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차트 정보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인터뷰 등 기사 콘텐츠를 담아 무가지 형태의 차트매거진을 창간할 예정이고, 네이버와의 제휴를 통한 가온차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차트매거진은 일본 내 한류매거진 형식으로 배포되고, 네이버에서는 가온차트 정보뿐만 아니라 가온포커스 인터뷰 기사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음반판매량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스마트폰과의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한다. 오프라인 차트지에 QR코드를 삽입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실시간 음원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G

글·서일호 기자

2010년 음반판매 TOP10

	곡명	가수	판매량
1	'미인아 (BONAMANA)' The 4th Album	슈퍼주니어	200,193
2	The Second Album 'Oh!'	소녀시대	197,934
3	'훗 (Hoot)' The 3rd Mini Album	소녀시대	163,066
4	'RunDevilRun'	소녀시대	136,851
5	GD & TOP 정규앨범 1집	GD & TOP	130,000
6	The 2nd Album 'LUCIFER'	샤이니	124,961
7	To Anyone	2NE1	122,845
8	The Beginning	JYJ	99,903
9	The 4th Album Repackage '미인아'	슈퍼주니어	99,355
10	The Beginning (New Limited Album)	JYJ	98,311

2010년 다운로드 TOP10

	곡명	가수	판매량
1	죽어도 못 보내	2AM	3,352,827
2	Oh!	소녀시대	3,316,889
3	Bad Girl Good Girl	miss A	3,119,784
4	못해 (feat. 美)	포맨 (4Men)	3,093,483
5	너 때문에 미쳐	티아라	3,042,224
6	잔소리 (with 2AM 슬옹)	아이유	3,008,795
7	루팡 (Lupin)	카라 (KARA)	2,977,898
8	외톨이야	씨엔블루	2,959,800
9	2 Different Tears	원더걸스	2,790,298
10	죽을만큼 아파서 (feat. 멜로우)	MC몽	2,698,185

2010년 스트리밍 TOP10

	곡명	가수명	판매량
1	Bad Girl Good Girl	miss A	37,315,823
2	죽어도 못 보내	2AM	34,166,742
3	잔소리 (with 2AM 슬옹)	아이유	33,312,856
4	Oh!	소녀시대	33,038,894
5	못해 (feat. 美)	포맨 (4Men)	30,279,518
6	죽을만큼 아파서 (feat. 멜로우)	MC몽	29,818,457
7	너 때문에 미쳐	티아라	29,167,331
8	루팡 (Lupin)	카라 (KARA)	28,603,338
9	2 Different Tears	원더걸스	28,504,554
10	외톨이야	씨엔블루	27,564,498

2010년 모바일 TOP10

	곡명	가수	권리사명
1	그 사람	이승철	네오위즈인터넷
2	밥만 잘 먹더라	창민 & 이현	로엔엔터테인먼트
3	죽어도 못 보내	2AM	로엔엔터테인먼트
4	그여자	백지영	Sony Music
5	죽어도 사랑해	거미 (Gummy)	SBS콘텐츠허브
6	Go Away	2NE1	엠넷미디어
7	언제나	허각	엠넷미디어
8	잔소리 (with 2AM 슬옹)	아이유	로엔엔터테인먼트
9	Bad Girl Good Girl	miss A	로엔엔터테인먼트
10	Bubble Love	MC 몽 & 서인영	KT뮤직

2010년 디지털 종합 TOP10

	곡명	가수	가온지수
1	Bad Girl Good Girl	miss A	805,177,964
2	잔소리 (with 2AM 슬옹)	아이유	760,005,040
3	죽을 만큼 아파서 (feat. 멜로우)	MC몽	667,681,012
4	Go Away	2NE1	620,931,026
5	Oh!	소녀시대	615,916,330
6	2 Different Tears	원더걸스	612,819,160
7	밥만 잘 먹더라	창민 & 이현	608,648,207
8	그땐 그땐 그땐	슈프림팀 & 영준	583,746,890
9	고백	뜨거운 감자	578,141,618
10	훗 (Hoot)	소녀시대	563,799,214

수없이 고민한 者, 그는 승리한다

광개토왕은 패배한 조부(祖父)의 유산을 운명처럼 걸머졌다. 수세(守勢)를 공세(攻勢)로 바꾸기 위해서 영웅을 필요로 했다. 움츠려 있던 고구려인들의 마음에 긍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광개토왕의 운명이었다.

후연이 힘을 잃자 고구려가 북방 초원의 강자로 떠올랐다. 광개토왕은 북방 초원 유목민 부족에게 노획한 물자를 남쪽의 백제를 치는 데 활용했다.

393년 8월 가을 어느날 백제 아신왕(阿莘王, 17대)은 그의 외삼촌 무(武)에게 말했다. "관미성은 우리 백제의 중요한 요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으니 분하고 애석하다."

무는 군대 1만명을 모집해 관미성을 포위했다. 성 안으로 화살과 돌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러나 관미성은 꿈쩍도 않고 버텼다.

백제군의 식량은 떨어져 갔다. 재보급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치밀하게 배치된 고구려 요새들의 방해를 받았다. 결국 무는 수많은 시신을 뒤로하고 철수를 해야만 했다.

이듬해인 394년 7월 수곡성(水谷城) 아래에서 참패를 당한 무의 군대는 한 달 후 세번째 도전을 했다. 이번엔 임진강변이었다.

백제군이 진군해 오자 광개토왕의 7천명 군대는 대열을 갖추었다. 병력은 백제군이 더 많았지만 기병에서는 고구려가 앞서 있었다. 전투에서 기병 전력이 우세하면 상대편은 쉽게 덤비지 못한다. 기병들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낸 광개토왕

기병이 약한 측은 항상 제약을 받았다. 결국 아신왕은 자신의 군대 8천명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잃고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이어 초원에서는 더 나쁜 소식이 들려 왔다. 395년 후연의 주력이 내몽고의 참합피에서 북위군(軍)에게 참패했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수세에 몰린 후연은 397년 화북(華北)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요서의 지방 정권으로 전락했다. 당시 북위의 진취적인 수령 탁발규(북위 태조 道武帝, 386~409)의 등장과 성공적인 팽창은 후연을 잠식하는 과정이었다.

광개토왕의 가장 큰 라이벌(후연)이 다른 이에게 정통으로 맞아 다운되어 링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되었다. 소문은 요하를 넘어 삽시간에 만주와 한반도 전체에 퍼졌다. 백제의 아신왕의 입에서 저음의 신음이 흘러나왔다. 북쪽으로부터의 족쇄가 풀린 광개토왕이 앞으로 더 설칠 터이다.

더구나 후연의 모용수는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고구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후연의 명운은 뻔했다. 백제도 암울해졌다.

하지만 광개토왕은 쇠퇴일로에 있는 후연의 정원에서 언제 떨어질

지 모르는 무르익은 과실을 보았다. 395년 광개토왕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서북방의 초원으로 나아갔다. 부산(富山)과 빈산(貧山)을 지나 염수(鹽水)에 이르렀다.

요하 북쪽의 광활한 초원에서 고구려 기병들은 6백~7백 개의 유목민 부락을 발견하고 무수한 소·말·양을 노획했다. 왕은 가축을 길러 군수자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목민에게서 빼앗아 오면 된다고 생각했다.

후연이 힘을 잃자 고구려 군대가 초원에서 활개를 쳤다. 395년 그곳에서 확보된 물자는 이듬해 남쪽의 백제를 치는 데 활용됐다. 춘천에서 충주에 이르는 한강 중상류지역을 모조리 장악했다(광개토왕비문).

당시 물자 수송은 강을 주로 이용했으며, 수취된 물자는 물의 흐름을 따라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왔다. 한강 하류에 있는 백제의 수도 한성은 서해안의 바다도 이용했지만 강을 이용해 내륙의 곡물과 물자를 수취해 왔다.

이로써 한성은 배후지역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고구려에 대한 저항도 약해졌다. 고구려군이 강을 건너 한성 부근에 육박하자 백제군이 성문을 열고 나와 저항했다. 하지만 격퇴되었고, 고구려군은 궁핍해진 한성을 포위했다.

아신왕은 백기를 들었다. 광개토왕 앞에서 성대한 항복의식이 거행되었다. 백제왕은 남녀 생구(生口) 1천명과 세포(細布) 1천 필을 의식의 제물로 바치고,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이익이 되지 않는 영토 확장은 의미가 없다고 본 광개토왕은 한성을 점령하지 않고 귀국했다.

광개토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누빈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는 전쟁 때마다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했다. 한 번의 실수는 자신의 카리스마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를 따르며 충성하던 부하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신라를 도와 왜군을 낙동강 서쪽으로 몰아내

397년 고구려군이 물러가자 아신왕은 자신의 태자 전지를 왜국에 볼모로 보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삼국사기). 아신왕은 대규모의 문화적·물질적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일본열도에 있는 여러 호족은 백제가 주도하는 국제교역에 이권이 걸려 있었고, 백제의 패배는 그들의 이권상실을 의미했다.

399년 광개토왕이 머물고 있던 평양에 신라 내물왕이 보낸 사신이 도착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왜군이 신라의 성들을 함락시키고 우리 신라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께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로써 광개토왕의 고구려군과 왜군이 신라의 땅에서 격돌하게 된다. 백제와 경쟁하고 있던 고구려에 신라는 이용가치가 있는 상대였다.

이듬해 광개토왕은 군대 5만명을 동원했다. 철원에서 충주와 단양에 이르는 한강 중상류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평양성에서 출발한 고구려 군대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보급받을 수 있었고, 소백산 줄기를 넘어선 이후에는 신라가 보급을 담당했다.

신라군을 상대로 위력을 보여준 왜군은 고구려군을 만나자 힘을 쓰지 못했다. 천재적인 군사지도자가 지휘하는 고구려군은 역전의 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난쟁이 왜군은 무너졌고, 낙동강 서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광개토왕의 카리스마로 일어선 고구려

고구려군은 그들을 지금의 경남 함안까지 추격해 궤멸시켰다. 남쪽에서 올라온 왜군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자신의 무덤을 남겼다.

광개토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누빈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보면 연민의 대상일 수 있다. 전쟁이란 항상 상대를 얕보면 지는 법이다. 그는 전쟁 때마다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했다.

당시 고구려는 왕의 카리스마에 의존했다. 선대의 패전이란 유산을 그가 걸머지고 있었다. 수세를 공세로 바꾸기 위해서 영웅을 필요로 했다. 움츠려 있던 고구려인들의 마음에 긍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광개토왕은 "지는 것이 무섭다"고 항상 스스로 되뇌었을 것이다. 한 번의 실수는 자신의 카리스마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를 따르며 충성하던 부하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운명을 걸머진 자는 강하지만 때론 슬프다. G

글·서영교 (중원대 박물관장)

| 글 싣는 순서 |

① 다시 주목받는 백제 근초고왕
② 비운의 고구려 고국원왕
③ 광개토왕의 역사무대 등장
④ 광개토왕, 운명을 걸머진 자
⑤ 후연에 들어선 고구려 정권
⑥ 부왕 광개토왕비 세운 장수왕
⑦ 고구려 망명한 북연 황제, 풍홍
⑧ 장수왕의 중국 남북조 외교전략
⑨ 북위에 사신 보낸 백제 개로왕
⑩ 장수왕과 북위 풍태후
⑪ 백제 개로왕 일가의 몰살

그들의 천재성이 ☐을 만났다
그들은 성공했다 그것은 Google이다

구글 웨이

리처드 L. 브랜트 지음
안진환 · 유근미 옮김
북섬 펴냄 · 1만3천8백원

1998년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은 어떻게 전 세계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왜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 두 명은 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일 더 많은 영토를 늘리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전문 칼럼니스트인 저자 리처드 L. 브랜트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생존 법칙과 성공전략을 알려준다. 구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하면서 콘텐츠가 지배하는 대변혁의 시대에 생존하는 법을 담았기 때문이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두 젊은이는 인터넷의 속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젊은 천재들이었다. 초창기 인터넷 시기에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인터넷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뛰어난 지성으로 인터넷 웹페이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고안하였고, 이를 인터넷 검색엔진 프로젝트에 추가하였다. 이는 지금 보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도 이 방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스스로 찾아 개척해온 구글. 구글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기존의 규칙을 깨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구글의 방식은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준다.

래리와 세르게이만이 인터넷 세상을 통찰하고 그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했다. 이들은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검색어 광고 시장에도 나아갔으며 이는 결국 구글의 성장 엔진이 되어주었다. 그렇지만 저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받쳐주었던 그 환경'이라고 말한다. 스탠퍼드대학원은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둘의 페이지 랭킹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다. 벤처투자자들은 이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고집에 자금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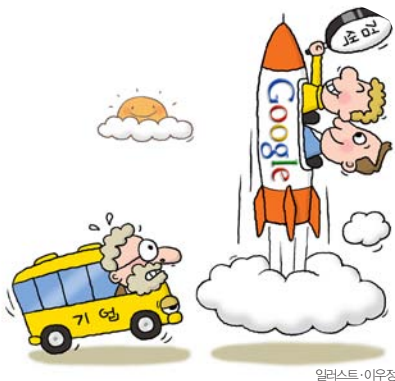
저자는 이들의 성공은 그들의 천재성, 그리고 그 천재성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의 만남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남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나아갔다.

그들은 학생일 때부터 기업은 사악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토로 삼았지만, 이제 래리와 세르게이는 기업이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사악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 너무나 복잡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간과한 문제는 후에 큰 폭풍이 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구글이 어떤 기업이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존의 규칙을 깨고, 많은 사람을 화나게 하면서도 다가올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싫건 좋건 모두가 그들과 경쟁해야 한다.

일러스트 · 이우정

지금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의 초일류 기업들, 값싼 노동력으로 승부하는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계획을 수정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대기업이라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국경을 뛰어넘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 책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G

글 · 윤경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행복의 무게

글과 그림 · 최영순

행복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발견하는 것이다. – 마가레트 리 런백

칭찬은 '남친'도 춤추게 한다?

김미경 더블유 인사이츠 대표 · 아트스피치 원장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작년부터?",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얼마 전 끝난 드라마에서 탤런트 현빈이 한 대사가 화제다. 낯간지럽지만 여자라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아부 스피치'의 절정이다. 여자들은 환호한다. 마음속 깊이 듣고 싶었던 말을 거침없이 해주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여자들의 이상형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경상도 남자'라고 우기는 남친은 더 이상 매력 없다. 남자들의 무뚝뚝은 무능력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연인들의 사랑을 확인하기 좋은 시기이다. 서로에 대한 아부가 '남발'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아부 스피치의 기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 흔하디 흔하지만 남자들한테 의외로 듣기 힘든 말, 바로 "사랑해"다.

어떤 남녀가 있다. 남자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하루 종일 선물 사주고, 놀아 주고, 뜨거운 키스까지 해줬다. 그런데 헤어질 때, 여자는 눈 동그랗게 뜨고 묻는다. "자기, 나 사랑해?"

여자들은 말로 확인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으로 치지 않는다. 그래서 낯간지러운 드라마 속 대사를 듣고 환호한다. 반면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진한' 칭찬이 더 효과적이다. 여자가 자신의 업적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에 감동한다.

남자들은 황당하다. 여태까지 한 모든 것들이 '사랑한다'의 표현인데 꼭 말로 해줘야 아나? 그렇다. 여자들은 말로 표현해야 안심한다. 남자가 이 말을 빠뜨리고 가버리면 밤새 찝찝하다. 날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왜 잘해 줬을까, 고민스럽다. 여자들은 말로 확인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으로 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면 표현하자. 솔직하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빠져있는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낯간지럽게 표현하자. 장미꽃 1백송이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자들이 여자에게 바라는 아부 스피치는 조금 다르다. 남자들은 밸런타인데이 때 여자들이 선물을 사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부담스럽다. 그보다는 '진한' 칭찬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한국 남자들은 자신이 여자에게 한 모든 행동이 '업적'이길 바란다.

애인에게 전화하는 것도 업적, 월급봉투 가져오는 것도 업적, 회식 빨리 끝내고 집에 와서 밥 먹는 것도 업적이다.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이렇게 맛있는 레스토랑을 어떻게 찾아냈어? 역시 멋져!" 등의 칭찬이면 '게임 끝'이다. 현명한 여자들일수록 이런 '업적형 대화'를 노련하게 잘 쓴다.

이제 남자친구, 남편이 1년 동안 한 일 중 랭킹 3위까지를 뽑아 낯간지럽게 칭찬해 주자. 어느새 현빈처럼 매력적으로 변신한 그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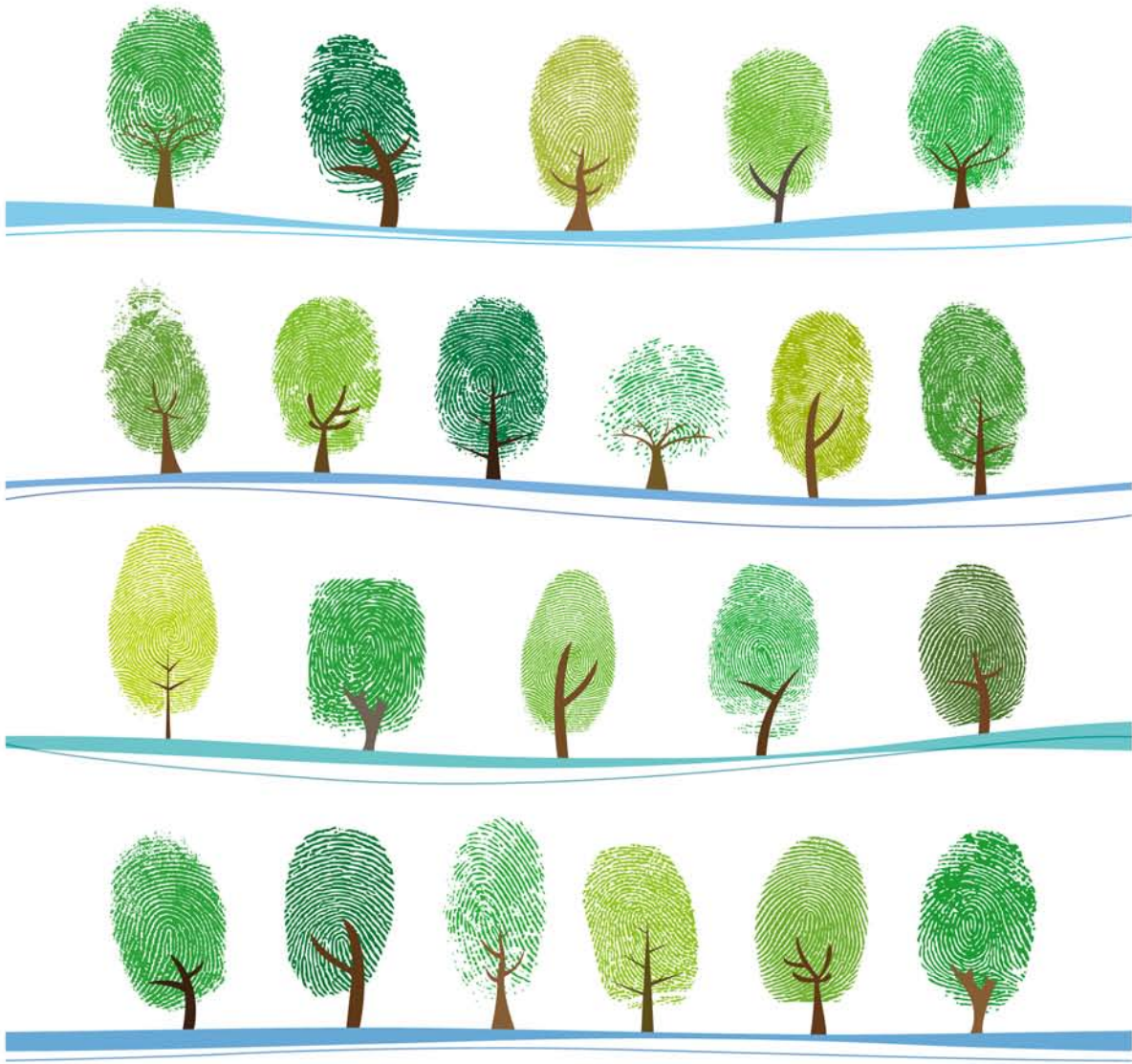
녹색성장 입장권

CO_2

떼는 순간 **산소**가 됩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연간 1억 9천 100만개가 사용됩니다. 무게만 해도 3820톤에 달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7100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일은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늦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세요

우리 강에 생명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변 나무심기」와 함께하세요!

강변이 테마 숲 조성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꾸며집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강변 숲은 자연과 지역의 정서가 어우러지는 테마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희망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새로 심는 나무에는 심으시는 분의 이름을 담은 표찰을 달아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강을 아름답게 꾸미고, 즐거운 추억도 담아가세요.

희망캡슐로 추억을 간직하세요!
참가하신분들의 사연을 타임캡슐에 담아 20년간 보관해 드립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나만의 나무'를 직접 구입하여 심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 여 대 상** 개인, 단체, 기업 등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
- **접 수 기 간** 2011년 2월 22일 ~ 3월 20일
- **신 청 방 법** "www.4rivers.go.kr/tree"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수종, 수량, 표찰 기재문구 등 작성

※ 행사일, 행사장소, 우편접수주소는 "www.4rivers.go.kr/tree"를 통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